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치쿠마강의 스케치(千曲川のスケッチ)』 고찰

— 작품의 성립과 묘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教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康 禎 心

2015年 12月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치쿠마강의 스케치(千曲川のスケッチ)』 고찰

— 작품의 성립과 묘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鸞 姬

康 禎 心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 年 12月

康禎心の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確認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教 大學院

2015 年 12 月

목 차

국문초록

| | |
|--------------------------|----|
| I. 서론 | 1 |
| II. 본론 | 3 |
| 1. 작품의 구성 및 기술방법 | 3 |
| 1) 작품의 구성 | 3 |
| 2) 기술방법으로서의 사생 | 7 |
| (1) 사생의 방법 | 7 |
| (2) 러스킨·밀레·다윈의 영향 | 9 |
| 2. 자연묘사의 특징 | 14 |
| 1) 치쿠마강 주변의 계절감 표현 | 14 |
| 2) 치쿠마강 주변의 지형 | 21 |
| 3) 구름 관찰의 정밀성 | 27 |
| 3. 인물과 동물묘사의 특징 | 33 |
| 1) 풍토와 인간의 기질 응시 | 33 |
| 2) 자연합일의 삶과 노동의 발견 | 42 |
| 3) 소의 감정 묘사 | 49 |
| III. 결론 | 54 |
| 참고문헌 | 56 |
| ABSTRACT | 58 |

<국문초록>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치쿠마강의 스케치(千曲川のスケッチ)』 고찰

— 작품의 성립과 묘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

康 禎 心

濟州大學教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指導教授 金 鸞 姬

『치쿠마강의 스케치(千曲川のスケッチ)』는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이 낭만주의 시인에서 자연주의 소설가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작품이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고찰했다. 이 작품은 도손의 습작기의 작품이지만 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된 작품이다. 본고가 텍스트로 한 1912년 간행된 『치쿠마강의 스케치』에는 이 작품이 성립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서문>과 <후기>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본고는 이 작품의 성립과 묘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했다.

1장에서는 「작품의 구성 및 기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의 구성은 <서론> <본론:1장-12장> <결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술방법은 <사생>에 의한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도손은 자신만의 <사생문>을 습득하기 위해 러스킨·밀레·다윈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2장에서는 「자연묘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나타난 자연묘사의 특징은 치쿠마강 주변의 계절감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치쿠마강 주변의 복잡한 지형을 사실적이며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도손은 러스킨의 『근대화가론』의 영향으로 구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 작품에는 크리스마스 날 나가노 관측소를 방문해서 기상관측 기사

와 구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대목이 상세히 나온다. 도손은 구름을 정밀하게 관찰했는데 기존의 기상학에서 규명된 구름의 종류에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구름의 종류를 보태고 있다.

3장에서는 「인물과 동물묘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손의 인물묘사의 특징은 풍토와 인간의 기질을 결부시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산촌인 나가노 사람들이 자연과 합일하며 살아가는 순응적인 태도와 자연 앞에서의 겸허함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산촌의 자연과 인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색채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밀레가 농민들 속에 살며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처럼 도손 또한 농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특히 도손은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 작품에는 「소도살」에 관한 묘사가 많이 나온다. 도살장에 끌려나온 여러 종류의 소들의 감정표현을 냉철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죽음을 감지한 소들이 보여주는 고통의 표정과 여러 감정을 실증적 방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도손은 『치쿠마강의 스케치』를 세상에 내놓는데 7년이란 세월을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각고의 훈련과정을 통해 비로소 도손은 자연주의 소설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 서론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1872-1943, 이하 도손)은 낭만주의 시인으로 출발하여 일본 자연주의 소설의 완성에 큰 업적을 세운 문학가이다.

청년시절 도손은 『새싹집(若菜集)』(1897.8) 『여름풀(夏草)』(1898.6) 『일엽주(一葉舟)』(1898.12)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낭만시인으로서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도손은 시에 안주할 수 없는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가족관계는 그를 힘들게 했다. 그가 처한 현실은 새로운 문학방법을 모색하게 했다. 그것은 산문으로의 이행이다. 짧은 신체시라는 그릇 안에 근대인의 복잡한 번뇌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도손은 새로운 문학 장르인 소설을 쓰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소설가로 자립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의 기반을 버리고 산촌인 나가노현 고모로(長野県小諸)로 가고 결혼도 한다. 가정을 꾸린 도손은 생계는 해결해야했기 때문에 고모로의 중학교에서 영어와 작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¹⁾ 고모로에서 마지막 시집 『낙매집(落梅集)』(1901)과 네 개의 시집을 합친 『도손시집(藤村詩集)』(1904)을 발표함으로써 시에 대한 결산과 산문으로의 이행을 동시에 준비한다.

새로운 문학 장르로의 이행은 새로운 문체의 시도를 의미하는데 새로운 문체는 대상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다. 새로운 문체를 습득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우선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고모로의 자연과 농촌생활의 풍경은 도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느낌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도손이 택한 방법은 스케치 즉 사생이었다. 사생 방법은 존 러스킨(Jone Reskin)의 『근대화가론』²⁾ 영향이 컸다. 자연을 사랑하고 시각적 감수성이 예민했

1) 1889년 4월 고모로 의숙의 교사로 부임하여 하타 후유코(冬子)와 결혼하여 신혼살림을 차림.

1905년 고모로 의숙을 그만두고 『과계(破戒)』 원고를 들고 상경한다.

2) 『근대화가론』(Modern Painters) : 전5권. 존 러스킨(저). 1843-1860년에 걸쳐 발간하였다. 터너의 그림들이 비평가들에게 웃음을 사는 것을 보고 터너를 옹호하기 위해 『근대화가론』 집필을 시작했다. 터너에게 늘 찬사를 보내며 풍경화의 대가라 평가되는 화가들의 '자연의 진실'을 연구해 나갔다. 17년에 걸쳐 집필되어 저자의 성장에 따른 견해와 관심이 변화하여 전체적인 통일이나 체계적인 구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러스킨의 독자적인 자연관과 예술관을 나타내고 있다. 러스킨의 관점의 중심은 자연에 대해 진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의 미학적 원리를 세웠다. 솔로몬 피시맨(1999) 『미술의 해석』 학교재 pp.26-55 참조

던 러스킨은 자연을 감상하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편견과 인습을 버린 눈으로 자연을 관조했던 러스킨의 사생의 태도를 도손은 그대로 답습하기에 이른다.

사생을 위해서 시에서는 생략되었던 사물의 움직임과 사람들 마음의 상태조차 관찰해야만 했다. 관찰의 방법은 과장 없이 사실적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쳐서 도손은 자신만의 글쓰기 방법을 획득할 수 있었다. 도손은 “글을 쓴다는 것은 사물을 잘 보는 것이다. 또 사물을 잘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³⁾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기록들은 수년이 지난 후 수필(기행문)로 완성되는데 이것이 『치쿠마강의 스케치(千曲川のスケッチ)』(1912)이다.

이 작품은 도손이 자연주의 소설 『과계』(1906) 『봄』(1908) 『집』(1910)을 연달아 발표한 이후에 세상에 나온다. 먼저 『중학세계』(1911.6-1912.8)라는 학생잡지에 연재를 마치고 난 후 단행본(1912.12)으로 간행된다.

7년간의 고모로 생활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사생문이 또 한 번의 여과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체로 탄생된 것이다. 단행본 『치쿠마강의 스케치』(1912)는 발표지 『중학세계』의 성격에 맞게 학생들을 독자층으로 한정하고 고모로에서 쓴 방대한 양의 글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초기의 원본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소설가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과정에서 나온 습작기록을 도손이 세상에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원래의 습작과는 형식과 문체에 있어 많이 달라진 형태로 나왔다고 추정된다.

본고는 『치쿠마강의 스케치』가 자연주의 소설가 도손을 있게 한 과도기에 놓인 작품으로서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작품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다츠 하루키(神立春樹)의 「시마자키 도손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있어서의 사쿠 마을들」⁴⁾과 시게마츠 야스오(重松泰雄)의 「『치쿠마강의 스케치』 문체시론」⁵⁾이 있다. 간다츠 하루키의 논

3) 物を書くことは、よく物を観ることだ。又よく物を記憶することだ。井上達三(1972) 『藤村全集 6』 筑摩書房 p.143
4) 神立春樹(1986) 「島崎藤村 『千曲川のスケッチ』における佐久の村々」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18(1) pp.1-28
5) 重松泰雄(1961) 「千曲川のスケッチ文体試論」 『語文研究』 12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pp.32-40

문은 치쿠마강 유역의 정경과 작품 속에 그려진 사쿠마을의 특징과 농민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시게마츠 야스오의 논문은 문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는 김남경의 「시마자키 토오송의 수필연구」⁶⁾가 있다. 이 논문은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수필이 기행문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 김남경의 논문 「도송(藤村)문학에 나타난 노동: 『치쿠마강(千曲川)의 스케치』와 감상집을 중심으로」⁷⁾가 있다. 이 논문은 『치쿠마강의 스케치』의 7장에 속한 단편 「농부의 생활(農夫の生活)」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주로 노동에 대한 분석이다. 노동이 도손의 인생과 예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는 문체론·장르 그리고 세부적 모티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는 『치쿠마강의 스케치』라는 작품의 성립에 있어서 텍스트가 지닌 독특한 구성과 기술방법,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묘사의 특징에 주목했다. 도손은 근대문학으로서의 소설을 지향한 작가이다. 그는 자연주의 문학이 요구하는 과학정신을 실증적 방법으로 쓰는 훈련을 『치쿠마강의 스케치』에서 시도했다. 본고는 텍스트의 외적·내적 형식과 내용을 고찰한 것으로서 위의 논문들과는 차별화되고 있다. 1912년 간행된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서문> <본문> <후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도손은 <서문>과 <후기>에서 이 작품의 구성과 기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관찰한 글을 지인에게 전하는 편지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고는 이 작품을 형식과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작품으로서 다루는 것이 작품의 전체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작품성립에 불가결한 구성과 기술방법 그리고 묘사의 특징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千曲川のスケッチ』(新潮社:1955)를 사용했으며 인용문의 번역은 논자가 했음을 밝힌다.⁸⁾

6) 김남경(2005) 「시마자키 토오송의 수필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7) 김남경(2003) 도송(藤村)문학에 나타난 노동: 『치쿠마강(千曲川)의 스케치』와 감상집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第54輯 pp.273-284

8) 인용문의 번역은 주로 논자가 했으나 부분적으로 『치쿠마강 스케치』(김남경 옮김(2015) 지식을 만드는 지식)를 참조함.

II. 본론

1. 작품의 구성 및 기술방법

1) 작품의 구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치쿠마강의 스케치』(1912)는 일반적인 수필기행문형식이 아닌 <서문> <본문> <후기>⁹⁾가 긴밀하게 연결된 구성이다.

<서문>에서 도손은 ‘시게루 군’하고 친근하게 부른다. 도손의 은인이었던 요시무라 다다미치(吉村忠道)¹⁰⁾의 아들인 요시무라 시게루(吉村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과거 7년간 지냈던 고모로에서의 삶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시게루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게루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작가는 문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학생 시게루와 『중학세계』¹¹⁾의 독자를 같은 시공간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산 위에 살고 있었던 내가 아직 중학생 교복을 입었던 자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연스럽고 또한 그 때의 생활이 가장 좋은 기념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山の上に住んだ時の私からまだ中学の制服を着けていた頃の君へ、これが私には一番自然なことで、又たあの当時の生活の一番好い記念に成るような心持がする。

(序 pp.5-6)

“시게루 군! 너의 아버지도 이미 없는 사람이고 내 아내도 없다. 내가 산에서

9) <서문>: 序(pp.5-7) <본문>: その一 - その十二(pp.8-150) <후기>: 奥書(pp.151-159)

10) 요시무라 다다미치(1841-1902): 도손의 큰형 히로스케(広助)의 지인. 도손은 12세 때 다다미치의 집에 맡겨져 20세 때 메이지 학원을 졸업하고 혼자 독립을 할 때까지 다다미치의 가족들과 같이 10년 동안 생활했다. 도손의 소년시절 은인이다.

11) 『중학세계』: 근대일본의 대표적인 교육 잡지의 하나로 중학생 또는 그것에 준하는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한 잡지이다. 내용은 중학생 뿐 만 아니라 중학교 정도의 학교였던 사범학교 실업학교 등의 재학생 졸업생등 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출판 시기는 1898년 9월호부터 1928년 3월호까지 31년에 걸쳐서 발행 되었다. 三上敦史(2009) 『雑誌『中学世界』にみる独学情報』 『愛知教育大学研究報告 58(教育科学編)』 愛知教育大学 pp.115-123 참조

내려오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네와 나의 생활 모습도 변했다”

茂さん、君のお父さんも最早居ない人だし、私の妻も居ない。私が山から下りて来てから今日までの月日は君や私の生活のさまを変えた。 (序 p.6)

이처럼 <서문>에서 도손은 시게루와 도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것은 시게루는 아버지와 사별했으며 자신은 아내와 사별했다는 공통점을 들어 심정적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작중 독자 시게루와 잡지 『중학세계』의 독자는 일체화되어 더욱 돈독한 유대감을 지닐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적 구성의 한 단면을 『치쿠마강의 스케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고모로에서 중학교 교사였던 도손과 도쿄에서 중학생이었던 시게루의 설정은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내야 했다.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 잡지이자 수험 잡지 『중학세계』에 연재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중학세계』가 표방하는 취지도 고려해야 했다. 1899년 「중학교령」 개정에서는 “중학교는 남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실업(취업)교육은 실업학교의 역할로 규정하고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분리했다. 따라서 각지의 중학교는 중앙에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¹²⁾ 『중학세계』는 근대 학제(学制)가 낳은 새로운 계층인 중학생에 맞춰진 형태로 창간되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잡지인 『중학세계』에 7년간의 방대한 고모로 스케치는 취사선택되어 독자들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다.

작가의 체험은 허구가 아닌 일상생활에 토대한 사실담이어서 중학생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적합했다고 생각된다. 시골교사와 학생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알려주는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도손은

12) 高山樗牛의 『중학세계』 창간사(創刊辭) : “지금이야 말로 중등교육은 전국에 보급하여 이미 각 부 현에 설치된 공사심사중학교의 수는 거의 2백에 달하고 취학생도 또한 8만 이상 나온다.(중략) 소년의 품성 덕행을 뒤야 하는 것은 중등교육의 중요한 직무이다. 하지만 학교가 가르치는 곳의 과정은 심상 일반의 사리를 넘지 않는다. 필요불가결한 것을 처음부터 말할 것도 없지만, 자칫하면 건조무미해서 아동이 지겨워하고 기피하는 곳이 된다. 이 일정의 규율, 매년 하는 곳의 교육에 있어서 때때로 어쩔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취미와 위로와 쾌락과 실익을 주고, 곁해서 공부절차의 지조를 장려하는데 좋은 반려가 있다면 어찌 소년이 행복하지 않으리. 우리 『중학세계』는 이와 같이 좋은 반려로서 스스로 임무를 다할 것이다.” 高山林次郎 (1898.9) 「発刊の辭」 『中学世界』
永井聖剛 「初期 『中学世界』における文学の再編成—中学世界への参与と逸脱に関する一考察—」 『愛知淑徳大学論集』-文学創造学部・文化創造研究科篇-第10号(2010) p.29

교육적인 내용을 각별히 선별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은 1장에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중 시간은 봄으로 시작하여 봄으로 끝난다. 12장의 구성을 1년 12개월을 염두에 둔 편성임을 알 수 있다. 전체 12장 안에는 독립된 단편이 65편이 배열되어 있다. 7년간의 고모로 시절을 1년 안에 담기 위해서는 실제 날짜와는 다른 배열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손은 치쿠마강(千曲川)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춘하추동 4계절을 공들여 묘사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본문>에 나오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를 추출해 분류·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은 <1장·2장·12장>에, 여름은 <3장·4장>에, 가을은 <5장·6장·7장>에, 겨울은 <8장·9장·10장·11장>에 계절을 실감할 수 있게 자연물과 함께 계절행사를 곁들여 나타내고 있다.

| 계절 | 단편제목 |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 (*정해진 축일) |
|----|--|--|
| 봄 | 1장 - 「학생의 집(學生の家)」 「나무곰뱅이(鐵砲虫)」 「에보시산록의 목장(烏帽子山麓の牧場)」 | *지구절 : 5월 28일 고사리(ワラビ) 칠쭉(つつじ) 은방울꽃(きみかげそう) |
| | 2장 - 「청보리가 익을 무렵(青麥の熟する時)」 「소년의 무리들(少年の群)」 「보리밭(麥畑)」 | 청보리(青麥) |
| 여름 | 3장 - 「산장(山莊)」 「해독제 파는 여자(消毒賣の女)」 「기온마쓰리(十三日の祇園)」 | 보릿가을(麥秋) 제비(燕) *기온마쓰리 : 7월 1일~7월 30일 |
| | 4장 - 「나카다나(中棚)」 | 뜨거운 모래(熱い砂) |
| 가을 | 5장 - 「산속의 온천(山の温泉)」 「구월의 밭두렁(九月の田圃道)」 | 시구레(時雨) 나팔버섯(初茸) |
| | 6장 - 「가을수학여행(秋の修學旅行)」 「고원 위에서(高原の上)」 | 가을수학여행 마른잎(枯葉) |
| | 7장 - 「낙엽하나(落葉の一)」 「낙엽 둘(落葉の二)」 「낙엽 셋(落葉の三)」 「소춘의 언덕(小春の岡辺)」 | *친장절 : 11월 3일 소춘 : 음력10월의 또 다른 이름 |

| 계절 | 단편제목 |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 (*정해진 축일) |
|----|---|--|
| 겨울 | 8장 - 「한상차림(一ぜんめし)」 「소나무 숲속(松林の奥)」 | 에비스코(夷請) : 음력10월20일 또는 1월10일. 겨울태풍(雪嵐) 겨우살이(冬蘂) |
| | 9장 - 「설국의크리스마스(雪國のクリスマス)」 「철도풀(鐵道草)」 「소도살 하나(屠牛の一)」 | *새해첫날(正月の元日) |
| | 10장 - 「치쿠마강을 따라(千曲川に沿うて)」 「나룻배(川船)」 「눈의 바다(雪の海)」 | 상고대(ナゴ) 고드름(氷柱) 설국(雪國) |
| | 11장 - 「산에 사는 사람들 하나(山に住む人々の一)」 「소작인의 집(小作人の家)」 | 썰매(橇) |
| 봄 | 12장 - 「길가의 잡초(路傍の雑草)」 「따뜻한 비(暖かい雨)」 「기타야마의 늑대(北山の狼)」 「산위의 봄(山上の春)」 | 한삼덩굴(かなむぐら) 봄의풀꽃(春の花くさ) 남천(南天) 버드나무가지(柳の枝) |

<후기>에서는 『치쿠마강의 스케치』가 발표되기까지의 내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정도로 나도 새로운 갈망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제4집 『낙매집』을 출판했을 즈음, 나는 좀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배우려고 했다.”¹³⁾ 라고 했는데 도손의 고모로 시대는 시에서 산문으로 이행하던 시기였다. 소설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손이 문체 문제에 봉착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문체를 위해 고심한 선배작가들을 떠올리며 자신 또한 동일한 숙제를 안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도손은 고모로의 자연(구름)과 생활풍경을 관찰 기록하며 사생(스케치)의 방법으로 문장 훈련을 한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려내는 것이 사생 훈련이었으며 이것은 시를 썼던 방법과는 이질적이었다. 산문을 쓰기 위해서는 언문일치 문장개량운동에 동참해야 했다. 사생 훈련은 그 자체가 언문일치운동의 일환이었다.

언문일치운동의 원천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소설신수(小説神髓)』에 있

13) 「それほどわたしも新しい渴望を感じていた。自分の詩集を出した頃、私はもっと事物を正しく見ることを学ぼうと思立った。」 奥書 p.152

다. 쓰보우치 쇼요는 근대문학이론을 제창한다.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는 라쿠고(落語)를 필기하는 형식을 취하며 언문일치 문장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타바테이 시메이의 『뜬구름(浮雲)』(1887-1889)은 <だ체> 「밀회(あひびき)」(1888) <だ체> 야마다 비묘(山田美妙)의 『무사시노(武蔵野)』(1888) <だ체> 『나비(胡蝶)』(1889) <です체>로 발표된다. 1891년에는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의 <である체> 소설 『두 아내(二人女房)』가 나왔다. 소설에 있어서 메이지 30년대가 되면 후타바테이의 <だ체> 와 야마다 비묘의 <です체> 등을 누르고 오자키 코요의 <である체>가 세력을 떨치게 된다. 이어서 도손의 『과계(破戒)』(1906)와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1907)등의 자연주의 소설의 출현은 언문일치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¹⁴⁾ 메이지 20년대와 30년대는 다양한 문체가 실험되었고 다양한 표현형식이 가능했음을 말한다. 이처럼 메이지시대의 문학가들이 구시대의 언어와 새로운 시대의 언어 사이를 왕래하면서 언문일치완성에 이르게 된 과정을 <후기>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2) 기술방법으로서의 사생

(1) 사생의 방법

『치쿠마강의 스케치』의 기술태도는 한 마디로 사생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생’은 서양화의 화법에서 나왔으며 메이지시대 작가들이 매료되어 시도했던 방법이다.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등이 사생문 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작가이다.¹⁵⁾ 이를 계승하여 도손 역시 고모로의 자연현상과 생활풍경을 관찰하여 사생(스케치)의 방법으로 문장 훈련을 한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려내는 것이 사생 훈련이었으며 이것은 시를 썼던 방법과

14) 이여희(2008) 「명치시대의 대우표현에 관한 고찰 —二葉亭四迷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p.13

15) 마사오카 시키는 서양화가 나카무라 후세쓰(中村不切)로부터 배워 “서양회화의 장점은 사생에 있다”며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태도를 중시 했는데 그의 ‘사생설’은 단가 하이쿠의 방법론이 된다. 이어 나쓰메 소세키는 「사생문」이라는 평론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다(吾輩は猫である)』는 사생문으로 시도된 작품이다. 이처럼 서양화에서 비롯된 사생의 태도는 시마자키 도손 『치쿠마강의 스케치 구니키다 돛보(国木田独歩)』 『무사시노』 등 메이지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난희(2014) 「도쿠토미 로카 『自然과 人生』 고찰」 『日本言語文化』 제29輯 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 pp.483-484 참조

는 이질적이었다. 도손에게 사생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준 사람은 존·러스킨이다. 도손은 러스킨의 『근대화가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후기>와 『낙매집』의 「구름」에서 러스킨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산문을 쓰기 위해서는 도손도 언문일치 문장개량운동에 동참해야 했다. 사생 훈련은 그 자체가 언문일치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좀더 자신을 신선하게 그리고 간소하게 할 수는 없을까. (もっと自分を新鮮に、そして簡素にすることはないか。p. 6)”라고 <서문>에서 말했듯이 사물과 대상을 새롭고 참신하게 보는 방법은 사생의 태도이다. 도손은 척박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시한다. 사계절의 변화와 동식물과 산천초목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노트에 기록한다. 과장된 감정이입은 철저히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적는 훈련을 한다. 이러한 훈련이 훗날 도손을 자연주의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모로에서 노트에 적은 스케치는 관찰의 결과를 사실적·객관적·과학적인 사생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훈련이었지만 나중에 소설작품을 쓰게 될 즈음에는 인간과 사물의 내면까지도 담게 된다. 그 첫 걸음으로서 외관을 잘 관찰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훈련부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도손은 고모로의숙(小諸義塾)에서 1주일에 28시간씩 수업을 했다. 학교업무를 마친 후에는 정원을 밭으로 경작하는 등 직접 자연을 체험하기도 한다.¹⁶⁾

도손은 고모로에서 네 번째 시집 『낙매집』(1901)을 마지막으로 시인의 길을 접는다. 새로운 글쓰기를 표방한 고모로에서의 문장 스케치는 습작 상태로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된다. 다른 작품 『과계』 『봄』 『집』을 발표한 이후 나오게 되는데 『치쿠마강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소설가로 거듭나기 위해 고모로에 정착한 도손은 자신이 원했던 간소한 생활을 실천한다. 자연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방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척박한 자연 속에 들어가 실제로 맛보고 경작하는 삶을 함께 해야 했다.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사물을 보는 태도와 소설가로서 자립하기 위해 사물을 보는 태도는 달라야 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시에서 산문으로의 이행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가늠하게 한다. 산문을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체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낭만시인으로서의 타성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고모로에서의 스케치는 그대로 방치해

16) 吉田精一(1981) 『吉田精一著作集6 島崎藤村』 桜楓社 p.33

두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다른 작품들을 쓰면서 문체에 확신이 섰을 무렵에 발표한 것이 『치쿠마강의 스케치』임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나도 새로운 갈망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제 4 시집을 냈을 때, 나는 좀 더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을 배우려고 결심했다. 이 마음으로부터의 요구는 상당히 격렬했기 때문에 나는 삼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지내게 되었고,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게 이런 스케치를 시작했고, 이것을 수첩에 적어 내려가는 것을 자신의 일과처럼 했다.

それほどわたしも親しい渴望を感じていた。自分の第四の詩集を出した頃、わたしはもっと事物を正しく見ることを学ぼうと思立った。この心からの要求はかなりはげしかったので、そのためにわたしは三年近くも黙して暮すようになり、いつ始めるともなくこんなスケッチをはじめ、これを手帳に書きつけることを自分の日課のようにした。(奥書 p.152)

고모로에서 살면서 도손은 시작품을 종종 발표했다. 1901년에 발표한 『낙매집(落梅集)』에는 「고모로 고성 주변(小諸なる古城のほとり)」、「야자열매(椰子の実)」、「치쿠마강 여정의 노래(千曲川旅情の歌)」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도손이 아직 낭만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싹집(若菜集)』에 보이는 정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사랑 등의 ‘개인적 서정’보다는 인생을 직시하고 관조하는 ‘서사적 서정’으로 변하고 있다. ‘인생 나그네’로서의 자기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서사문학을 위한 문체로서의 연문일치로의 이행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문체를 획득하기까지의 침묵의 3년은 도손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2) 러스킨·밀레·다윈의 영향

메이지학원 시절 기독교를 통하여 서구문학을 접하게 된 도손은 셰익스피어·단테·괴테·바이런·워즈워스 등 많은 서구작가와 작품에 심취했다. 메이지학원은 방대한 양의 서적을 갖춘 도서관으로도 유명하다. 메이지학원 졸업 후 『문학계』 활동 시절 발표했던 작품들은 이 때 습득한 독서력을 바탕으로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손은 『여학잡지(女学雑誌)』¹⁷⁾를 주관한 이와모토 켄지(岩本

17) 『여학잡지(女学雑誌)』: 1885년 7월부터 1회 곤도 겐조(近藤賢三)를 편집인으로 발행을 시작하

善治)의 장서(藏書) 속에서 러스킨을 발견한다. 도손이 도쿄를 떠나 고모로에 갈 때 러스킨 전집 6권을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보아 도손에게 끼친 러스킨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다. 러스킨을 통해 사생의 개념을 배운 도손은 고모로에서 자연관찰에 몰두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산문시 「구름」이다. 이것은 나중에 시집 『낙매집(落梅集)』(1901)에 수록된다. 이처럼 도손은 서구의 여러 지식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생 훈련에 임했다. 도손은 『치쿠마강의 스케치』 <후기>에서 러스킨·밀레·다윈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다. 러스킨에게 사생의 개념을 배우고 밀레의 그림을 통해서 자연과 일체화 된 인간의 삶을 응시하게 된다. 또 다윈을 통해서 실증적·과학적 방법으로 자연을 관찰해야 한다는 글쓰기 태도를 배운다. 이러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그의 사생문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 『치쿠마강의 스케치』를 완성하는데 영향을 끼친 위의 세 사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존 러스킨(1819-1900)

도손이 존 러스킨¹⁸⁾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메이지학원을 졸업한 직후이다. 『여학잡지(女學雜誌)』의 편집과 발행을 맡고 있던 이와모토의 서재에서 러스킨의 『근대화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1919)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¹⁹⁾ 이후 센다이(仙台) 도호쿠학원(東北學院) 작문교사로 있을 당시 러스킨의 『근대화론』 제3절 13장을 「서구고대의 산수화를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동북문학(東北文學)』(1897년 제19, 23호)에 발표한다.²⁰⁾ 풍경화가 터너를 변호했던 러스킨은 터너를 옹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미술의 근본 원리를 자연과학적 관찰로서²¹⁾ 논하는 예술론 『근대화

여 1904년 11월까지 제526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10회 이후 이와모토 겐지가 오랜 기간 편집을 맡았다. 여성의 지위향상 권리신장 행복증진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島崎藤村事典』 p.211 참조

18) 존 러스킨(Jone Reskin, 1819-1900) : 영국의 미술, 건축 평론가. 런던에서 출생, 코니스턴에서 사망. 부유한 포도주 상인 집에서 태어나 가정에서만 초등·중등 교육을 받았다. 1837-1842년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배우고 입학하자마자 『건축의 시학(The Poetry of Architecture)』(1837-1838)을 썼고 졸업 후 『현대의 화가들(The Modern Painters)』(1843)를 발표하여 터너를 옹호하였다.

19) 島崎藤村著(1984) 『桜の実の熟する時』 新潮社 p.150

20) 島崎藤村著 井上達三編(1972) 『藤村全集 16』 筑摩書房 pp.394-95

21) 러스킨 당시 19세기 초 과학자의 소임은 주로 기술과 분류였다. 자연에 들어가 자연을 그리고 수집하고 목록을 만들어 분류하는 것이 당시 자연과학의 역할이었다. 김은경 2009 『미술의 규

가론』을 저술한다.²²⁾ 『근대화가론』을 통해 인습에 얽매인 아카데미 미술을 비판한 러스킨으로부터 도손은 자신의 방향을 찾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작년 4월 도시를 떠나 시나노에 부임하여 갈 때 나의 짐 속에는 『근대화가론』 6권이 들어있었다.”²³⁾라고 밝힌다. 러스킨의 소년시절부터 소묘와 스케치하는 습관은 결국 미술과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노력으로 러스킨은 예민한 시각적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기보다 훈련된 자연주의자의 깊은 관찰력을 보여 주었다. 러스킨의 예민한 감수성과 관찰력을 닮으려고 했던 도손은 사생의 첫 걸음으로 대상을 잘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미키 하루(並木張)는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시하는 도손의 자세는 고모로에 오기 전까지는 그다지 없었다. 시에서 산문으로 진로를 바꾼 도손에게 있어 대상을 철저히 관찰하는 것은 문장을 결정하는 승부였다.”²⁴⁾ 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문체를 습득하여 산문을 써보겠다는 의지와 사생의 태도는 러스킨에게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대상을 잘 보는 것으로 시작한 사생 훈련은 점차 사물의 일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결국에는 사물의 참모습 까지도 통찰하는 예리한 눈을 가지게 된다. 자연과학적인 관찰을 중시했던 러스킨의 영향으로 도손은 자연과 인간 등을 관찰하며 체험을 통해,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객관적·과학적인 사생의 방법으로 스케치를 하며 문장으로 옮기는 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나.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

밀레가 처음 일본에 소개된 것은 1876년 설립된 공부대학교(工部大学校)의 외국인 교사 안토니오 폰타네시(Antonio Fontanesi)²⁵⁾에 의해서다.²⁶⁾ 도손이 처음

범으로서의 자연: 존 러스킨과 초기 사상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회 미술사학보 제14호 p.102
 22) 러스킨이 본격적으로 미술비평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1836년 《블랙우즈 매거진》지가 평소 그가 존경하던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논평했던 사건이었다. 러스킨은 곧 터너를 변호하기 위해 『근대화가론』을 집필할 계획을 세우고 1843년 익명으로 제1권을 출판 했다. 미술 특히 회화를 위한 비평원리를 수립하려던 러스킨의 관심은 계속 확대되어 건축과 디자인, 마침내는 사회비평가로서 더 명성을 얻었다. 솔로몬 피시맨(1999) 『미술의 해석』 학고재 p.18 참조

23) 『藤村全集 1』 筑摩書房 p.252

24) 並木張(1992) 『小諸時代の藤村』 櫟 株式会社 p.154

25) Antonio Fontanesi (1818-1882) : 이탈리아 화가. 1876년 개교한 공부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써 일본인에게 서양화를 가르쳤다. 예술을 포함한 유럽의 근대문명 도입을 추진했던 메이지 정부가 고용해서 공부대학교 미술교사가 된다. 1878년 서남전쟁 후 정부가 재정난에 빠져 폰타네시는 더 이상 지도를 할 수 없다는 판단과 병에 의해 몸이 악화되어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밀레를 접한 시기는 메이지학원시절(1887-1891)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메이지학원의 9개 교과목 중에 미술과목이 있었고 미술담당 교사는 외국인이었다.²⁷⁾ 미술수업을 통해 서양화를 접하면서 밀레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890년대 초기는 일본의 미술·시가(詩歌)·소설 등 많은 분야에 자아의 해방과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갈망하는 낭만주의 경향이 나타난 시기이다. 1893년 창간된 『문학계』는 일본에 낭만주의를 알리는 시작이었으며 시와 소설에 국한하지 않고 문예비평과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었다.²⁸⁾ 이처럼 낭만주의는 미술과 문학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상호영향을 받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프랑스에서 10년간 인상과 회화를 공부하여 1893년에 귀국한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²⁹⁾를 비롯하여 서양의 근대회화를 공부한 화가들에 의해 일본의 화단은 외광파(外光派)³⁰⁾ 화풍이 유행한다. 일본의 미술과 문학은 서양 근대회화의 영향으로 ‘사생’이라는 방법을 접목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밀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

고모로의숙의 교사로 부임한 1889년 동료 교사 미야케 가즈미(三宅克己)를 소개 받는다. 미야케 가즈미는 메이지학원 1년 후배로서 미술교사이다. 프랑스에서 밀레와 코로를 연구한 미야케 가즈미를 통해 밀레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우게 된다. 인상과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태도는 실물을 직접 관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이들의 색채를 표현해 내는 기술은 도손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구름을 묘사하는데 활용되었다고 도손 자신이 「구름」에서 밝히고 있다.³¹⁾ 밀레는 전

된다.

<https://ja.wikipedia.org/wiki> 참조

- 26) 폰타네시는 밀레를 비롯하여 인상주의 화단의 외광파를 소개하여 당시 일본에서는 밀레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 27) 1887년 도손이 메이지학원 입학당시 보통학부 본과의 과목은 윤리·일한문·영어·수학·역사·동물 및 식물·미술·음악·체조 9과목 이었다.
- 28) 최유경(2012.8) 「일본근대문학과 미술에서의 풍경의 발견」 『중앙대학교 일본연구』 제33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294 참조
- 29) 黒田清輝(1866-1924) :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1894년 프랑스로 갔으나 회화로 진로를 변경 코란에게 배운다. 1896년 <백마회(白馬會)>를 창립한다.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 주임교수 역임. 외광파적 기법을 받아들인 사실적 화풍으로 근대일본회화의 중심인물. 최유경(2012.8) 「일본근대문학과 미술에서의 풍경발견」 중앙대학교 일본연구 33집 p.296
- 30) 외광파(pleinairisme) : 19세기 프랑스 회화사에 등장하는 호칭으로서 아틀리에의 인공조명을 거부하고 실외의 직접적인 빛을 받으며 습작 뿐만 아니라 유화까지도 제작하려는 태도, 또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화가를 지칭함. 그러므로 주제는 필연적으로 풍경화가 많다. 바르비종파, 인상파가 이에 속한다. 『미술대사전(용어편)』 참조

원화가로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러한 밀레의 영향은 도손으로 하여금 도시를 떠나 멀리 산촌으로 들어가 살도록 했으며 산촌사람들의 삶을 밀착해서 느끼게 했다고 생각된다.

다. 찰스 로버트 다윈(1809-1882)

일본에 다윈이 소개된 것은 1896년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1859)³²⁾이 『종원론(種源論)』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간행되면서 부터이다.³³⁾ 도손이 다윈을 접했던 시기는 고모로 시절로 추정된다. “그 산위에서 나는 발자크를 읽기 전에 다윈을 읽었다. 다윈의 저술에서 상당히 여러 감화를 받았다.”³⁴⁾ 라고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었음을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다.³⁵⁾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의 표현(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1872)³⁶⁾도 이 시기에 읽었음을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³⁷⁾ 산촌에 살고 있지만 도손은 도쿄에 있는 여러 지인들을 통해 최신 서적들을 입수해 읽는 등 소설가로서 자질을 갖추어 나간다.

『종의 기원』의 진화에 대한 이론은 근대 자연주의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인간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다윈의 결정론은 인간과 사회의 이면까지도 파헤치도록 했다. 자연주의 문학은 추악한 현실일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창작태도를 보여주었다. 도손이 다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예로 1장의 「에보시 산기슭의 목장」에서 “나는 또 이 고장에서

31) 『藤村全集 6』 筑摩書房 p.264

32) 영국의 박물학자 찰스 다윈의 생물의 진화에 관한 저서. 다윈은 1931부터 1936년까지 비글호를 타고 세계일주 항해를 한 경험을 통해 생물의 진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33) 교육학자인 立花銑三郎(1867-1901)에 의해 『生物始源、一名種源論』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34) 「飯倉だより」 『藤村全集 9』 筑摩書房 p.88

35) 並木張(1992) 『小諸時代の藤村』 櫟 株式会社 p.121-22

36) 내용은 표현의 근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개·고양이·말·반추동물·원숭이 등 동물의 표현 방식과 특별한 표현, 인간의 특수한 표현(고통·울음) 그리고 의기소침·걱정·슬픔·낙담·절망·환희·기쁨·사랑·부드러움·심사숙고·화해·연짚음·찌푸린 얼굴·결심·중요·노여움·경멸·모욕·혐오·자부심·무력함·인내·공정과 부정·놀라움·경악·두려움·공포·관심·부끄러움·수치심·겸손 등의 다양한 감정 표현을 방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진화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37) 奥書 p.154

야만스런 느낌이 나는 여자를 만나는 일도 있다.”³⁸⁾ 11장의 「산에 사는 사람들」에서 “사쿠 주변에는 특히 소극적인 용기가 풍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³⁹⁾ 등 거친 농부의 모습과 산골사람들의 기질 등을 묘사해주고 있다. 또한 동물에 대한 묘사는 1장의 「학생의 집」에서 “소는 또 상당히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발소리로 주인을 판별 한다”⁴⁰⁾라는 것처럼 다양한 소의 행동양상을 포함한 9장의 네 개의 단편을 통해 ‘소 도살’ 장면⁴¹⁾을 다뤄 주고 있다. 이처럼 자연 과학자와 같은 냉철한 눈으로 관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독자에게 전달한다. 다윈으로 부터 배운 실증적 과학적 태도가 『치쿠마강의 스케치』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인간에 대한 묘사는 본 논문 「자연묘사의 특징」에서, 동물에 대한 묘사는 「인물과 동물묘사의 특징」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 자연묘사의 특징

1) 치쿠마강 주변의 계절감 표현

예로부터 일본문학은 자연과의 친화가 두드러지며 단시(短詩) 하이쿠(俳句)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계어(季語)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쿠마강의 스케치』에도 계절감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단어들로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일본적 전통 위에 메이지시대 근대작가들은 서구로부터 새로운 자연관을 받아들였다.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는 투르게네프 작품의 번역 「밀회(あひびき)」(1888)를 통해 러시아문학에 나타난 자연 풍경을 언문일치문장으로 보여주었다. 액자 속에 들어있는 자연이 아닌 살아있는 자연을 실감하게 한 것이다. 이는 동시대 문학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계몽했다. 이에 촉발되어 일본근대의 자연문학이 탄생하게 된다. 도쿠토미 로카(徳富芦花)의 『자연과 인생

38) 1장 「에보시산 기슭의 목장」 p.12

39) 11장 「산에 사는 사람들 둘」 p.127

40) 1장 「학생의 집」 p.10

41) 9장 「소 도살 하나」 소 도살 둘」 「소 도살 셋」 「소 도살 넷」 pp.104-113

(自然と人生』(1900)과 구니키다 돛보(国木田独歩)의 『무사시노(武蔵野』(1901)가 그 실례이다. 도손의 『치쿠마강의 스케치』도 이 연장선에 있다. 이 작품들은 관념 속의 자연이 아니라 체험과 관찰에 토대한 객관적 자연묘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도손의 『치쿠마강의 스케치』에는 산촌 특유의 계절감과 고모로가 위치한 독특한 지형으로부터 오는 자연관찰이 잘 나타나 있다.

도손이 고모로에 정착하게 된 것은 도회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소박한 삶과 간결함 속에서 자연을 잘 보고 배우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고모로는 도손이 의도한 자연관찰 공부를 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 고모로는 나가노현 동쪽 아사마산(浅間山) 남서쪽 산중턱에 있는 시(城下町)이다. 그리고 주위에는 웅장한 치쿠마강이 흐르고 있다. 사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자연이 펼쳐진다. 도손은 이를 잘 포착하려고 산촌 도시에 7년간이나 체류한 것이다.⁴²⁾

『치쿠마강의 스케치』 본문을 이루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읽어보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산촌의 독특한 계절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절에 따라 산천초목이 변화하고 사람들도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1장 「학생의 집」은 ‘지구절(地久節)’이라는 단어를 통해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 ‘지구절’은 『노자(老子)』 7장 ‘천장지구(天長地久)’에서 유래하는 말로서 황후의 생일을 말한다. 1874년(明治7)년에 메이지 천황의 비(妃) 소헌(昭憲)황후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양력 5월 28일이 지구절로 제정되었다. 5월 28일이면 봄이라기보다는 초여름에 가깝다. 그러나 도손은 나가노의 봄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구절’을 앞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휴일을 맞이하여 동료들과 들에 나가 자연을 느끼며 고사리를 캐고 있다. 고사리는 전통 시가에서 봄을 나타내는 계절어(季語)다. 이곳에서는 5월 하순에 봄을 맞아 고사리를 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나는 지금 고모로 성지 가까운 학교에서 너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너는 이런 산촌에서는 얼마나 봄이 기다려지는지 또 얼마나 봄이 짧다

42) そこでわたしは都にあるお友達ばかり羨まずに、もつと正しく物を見ることを学びたいと思ひ立ち、それには先づ手近なところから始めようと思ひ立ちました。よく見れば、馬場裏から学校へ通ふ路傍の雑草までが、石垣の間なぞの隠れたところに好い本箱をひろげて、このわたしを待つてゐて呉れたのです。『藤村全集 10』筑摩書房 pp.499-510

고 생각하니? 4월 20일경이 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매화·벚꽃·자두 꽃이 거의 동시에 핀다.

私は今、小諸の城跡に近いところの学校で、君と同年位な学生を教えている。君はこういう山の上への春がいかに待たれて、そしていかに短いものであると思う。四月の二十日頃に成らなければ、花が咲かない。梅も桜も李も殆んど同時に開く。

(その一`学生の家` p.8)

나가노는 겨울이 긴 만큼 봄과 여름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봄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산촌마을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나가노의 봄은 5월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계절감을 전하고 있다. 봄에서 시작하여 봄으로 끝나는 작풍구성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지난 봄에 대한 각별한 갈망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작과 끝에 봄을 넣었기 때문에 봄에 대한 묘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을 많이 다루고 있다. 겨울이 긴 지방이어서 겨울에 얽힌 이야기 거리가 많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여름과 가을에 관해서는 분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4월 20일 경이 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매화도 벚꽃도 자두도 거의 동시에 핀다. 성터인 회고원에는 25일에 축제가 있는데 그 무렵이 꽃이 한창이다. 그러면 매년 약속이나 한 듯 비바람이 와서 한꺼번에 모든 꽃을 쓸어 가버린다.

四月の二十日頃に成らなければ、花が咲かない。梅も桜も李も殆んど同時に開く。城跡の懐古園には二十五日に祭があるが、その頃が花の盛りだ。すると、毎年きまりのように風雨がやって来て、一時にすべての花を浚って行ってう。

(その一`学生の家` p.8)

긴 겨울 끝에 찾아온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다. 기대에 맞춰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들뜨다. 마을에서는 꽃과 어우러진 봄을 즐기기 위해 매년 축제를 벌인다. 그러나 봄을 시샘하듯이 어김없이 비바람이 불어 닥쳐 꽃들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린다. 꽃이 지면 봄도 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봄이 짧다고 느껴지는 것이며 그만큼 애석해 하는 심정을 엿볼 수 있다.

보릿가을이다. 일 년에 2번씩 노랗게 되는 들판이 우리들의 양쪽에 있었다. 이 미 베어낸 보리밭도 많았다. 5리 정도 걸어가는 도중에 소금을 한 생선 다발을

든 농부와 함께 가게 되었다. 바느질집 주인은 농부를 뒤돌아보며 “이젠 완전히 모내기가 끝났군요.” “네 겨우 2,3일 전에. 그렇지만 옛날엔 열흘 전에 모내기를 했었는데 말입니다만, 요즘은 아주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늘진 논에는 그다지 결실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麥秋だ。一年に二度ずつ黄色くなる野面が、私達の兩側にあった。既に刈取られた麥畠も多かった。半道ばかり歩いて行く途中で、塩にした魚肉の薦包を提げた百姓とも一緒に成った。仕立屋は百姓を顧みて、「もうすっかり植付が済みましたかね」「はい、漸く二三日前に、これでも昔は十日前に植付けたものでございますが、近頃はずっと遠く成りました。日陰に成る田にはあまり実入りも無かったものだが、この節では一ぱいにとれますよ」。(その三 `山莊` p.30)

한자 맥추(麥秋)는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을 말하며 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어이다. ‘맥추’는 ‘보릿가을’로 풀어서 표현하기로 한다. 나가노는 산촌이라서 벼농사를 지을 경작지가 부족하다.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보리 밭농사를 짓는다. 보리를 수확한 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점점 논이 늘어나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벼 수확이 많아지는 상황을 주고받는 대화로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여름에 보리가 익을 무렵 들판이 한번 노랗게 물들고 가을이 되어 벼를 수확할 때 또 한 번 들판이 노랗게 물든다. 농촌의 여름을 보릿가을과 모내기철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리 수확기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음을 말한다. 누런 보리와 푸른 모가 섞여진 농촌의 들판의 이미지는 한 폭의 채색화를 보듯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마무리는 또 다른 준비라는 보이지 않는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수확과 동시에 파종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삶을 이어가는 강인한 내면과 근면성을 엿볼 수 있다.

“해독제는 있습니까?”

집집마다 문에 서서 날카로운 에치고 사투리로 부르는 여자 소리를 듣게 되었다. 검은 나그네 같은 모습, 등 뒤에 있는 큰 보자기, 햇빛을 받아서 빛나는 삿갓, 마치 제비 모두 같이 모여 서로 때를 지어 어김없이 먼 곳에서 오듯이 그들도 멀리 이 산위까지 여행 온다. 그리고 새의 무리가 여기저기 처마에서 떨어져 날아가듯이 그들도 또 둘이나 세 명씩 나름의 생각대로 집을 방문한다.

「毒消は宜う御座んすかねえ」

家々の門に立って、鋭い越後訛りで呼ぶ女の声を聞くように成った。黒い旅人ら

しい姿、背中にある大きな風呂敷、日をうけて光る笠、あだかも燕が同じような勢揃いで、互いに群を成して時季を違えず遠いところからやって来るように、彼等もはるばるこの山の上まで旅して来る。そして鳥の群が彼方、此方の軒に別れて飛ぶように彼等もまた二人か三人ずつに成って思い思いの門を訪ねる。

(その三`毒消売の` p.33)

계절감은 산천초목 뿐만 아니라 행상인을 통해서도 드러낸다. 여름이 되면 약초로 만든 해독제를 파는 행상인들이 산촌에 찾아 들어온다. 행상들의 방문은 여름이 왔다는 신호다. 여름이 되면 숲이 무성해지고 풀이 자라난다. 산촌에는 해충 독충 특히 뱀이 득실거린다. 보따리를 짊어진 행상인들은 니가타(新潟)에서 험준한 산을 넘어 이곳 산촌마을까지 찾아오는 것이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가을 추수기에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내 주위에는 이미 다 베어버린 논이며 아직 베지 못한 논이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두 가족 만이 남아서 벼 수확을 서두르고 있었다. 논이 오기 전에 빨리 하자고 하는 경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수선향으로 생각된다. (중략) 해가 짧기 때문에 모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일을 했다. 언덕 건너편에는 논이랑 뽕밭을 사이에 두고 부부가 쌍으로 샷갯을 쓰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중략) 내가 이 언덕을 떠나려고 했을 때 세 명의 여자는 아직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뒤돌아 그들을 봤을 때는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밖에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날이 저물어 버렸다.

私の周囲には、既に刈乾した田だの未だ刈取らない田だのが連なり続いで、その中である。二家族のみが残って収穫を急いでいた。雪の来ない中に早くと、耕作に従事する人達の何かにつけて心忙しさが思われる。(中略)日が短いから、皆な話もしないで、塵埃だらけに成って働いた。岡の向うには、稲田や桑畠を隔てで、夫婦して笠を冠って働いているのがある。(中略)私がこの岡を離れようとした頃、三人の女はまだ残って働いていた。私が振返って彼等を見た時は、暗い影の動くとしか見えなかった。全く暮れ果てた。

(その七`収穫` pp.80-83)

위 인용문에서 보면 나가노의 가을이 얼마나 길이가 짧고 바쁜 계절인가를 알 수 있다. 수확의 계절은 어느 지역이나 바쁘다. 그러나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나가노는 수확과 겨우살이 준비를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다.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때 어둡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 농부들의 초조함을 담담하게 그려내

고 있다. 어둠속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어두운 그림자로 묘사한 것은 그림의 명암법을 문장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명암으로 입체감을 잘 묘사했다. 이것은 도손이 영향을 받은 밀레의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밀레는 농부들을 소재로 농촌의 삶을 묘사한 농부화가이다. 고모로 시절 도손은 동료 교사인 서양화가 미야케 카즈미와의 만남을 통해 밀레에 대해 깊이 알게 된다. 미야케는 작중에서 M으로 나오는데 그의 야외 스케치활동에 도손도 동참하는 모습이 종종 나온다.

동지가 가까워지면 구름인지 뭉치 분간할 수 없는 수증기 무리가 가느다란 선의 집합처럼 추운 하늘에 걸려 있어 그 쓸쓸한 정취가 일몰 때 한층 더 내 마음을 끈다. 그 무렵 처마 밑 고드름도 차츰 길어져 한 자나 되는 것도 있다. 이영으로 된 지붕을 타고 흐르는 탁한 물방울이 얼어 붙기 때문에 갈색의 긴 칼을 보는 느낌이다. 마당에는 눈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텃마루 보다 높아진다.(중략) 동면하는 흙 속의 벌레처럼 한기가 심한 밤에는 우리 몸도 움츠러들어 버린다.

冬至近くに成れば、雪ともつかぬ水蒸気の群が細線の集合の如く寒い空に懸り、その蕭条とした趣は日没などに殊に私の心を引く。その頃には、軒の氷柱も次第に長くなって、尺余に及ぶものもある。草葺の屋根を伝う濁った雪が凍るのだから、茶色の長い剣を見るようだ。積り積る庭の雪は、やがて縁側より高い。(中略) 冬籠りする土の中の虫同様に、寒気の強い晩などは、私達の身体も縮こまってう。

(その九 `雪国のクリスマス` p.100)

위의 인용문은 나가노의 미묘한 대기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산촌이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해지는 겨울이 되면 낮 동안의 더운 공기가 식어가면서 수증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과학적인 눈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 수증기들은 확산되어 흩어지지 못하고 기다란 선들이 되어 걸려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근대과학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촌마을의 혹독한 겨울과 이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생명체의 숙명을 보여준다. 도손은 설국의 나가노를 시처럼 탐미적으로 그리지 않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감정표현은 절제하고 있으며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옮겨내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장했던 야채는 다 떨어지고 과, 감자류까지 부족하게 되어, 그렇구나 라고 하며 새로운 야채가 얻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할 때쯤은 매일 아침

미역된장국을 마시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중략) 음식이 부족한 것에는 질린다. 또 기름 냄새가 나는 얼린 두부인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란 녀석이 벽에 매달린 것을 보기만 해도 질린다.(중략) 그 때까지 참고 있었던 듯한 매화가 일시에 핀다. 매화에 이어서 벚꽃, 벚꽃에서 자두, 살구, 수유 등 꽃이 하얗게 우리들의 주위에 흐드러지게 핀다. 부엌문을 열어봐도 마당에 나가도 꽃의 향기가 가득 넘쳐 나지 않는 곳이 없다. 회고원의 성터에라도 학생을 데리고 가 보면, 짧지만 깊은 봄이 우리들의 마음을 취하게 한다...

貯えた野菜は尽き、葱、馬鈴薯の類まで乏しくなり、そうかと言って新しい野菜が取れるには間があるという頃は、毎朝々々若布の味噌汁でも吸うより外に仕方の無い時がある。(中略) 食物の乏しいには閉口する。復た油臭い凍豆腐かと思うと、あの黄色いやつが壁に釣なされたのを見てもウンザリする。(中略) それまで堪えていたような梅が一時に開く。梅に続いて直ぐ桜、桜から李、杏、菜萸などの花が白く私達の周囲に咲き亂れる。台所の戸を開けても庭へ出掛けて行っても花の香気の満ち溢れていないところは無い。懐古園の城跡へでも生徒を連れて行くと、短いながらに深い春が私達の心を酔うようにさせる。

(その十二 `山上の春' pp.149-150)

월동준비를 했지만 겨울이 긴 탓에 먹을 것이 떨어져 없다. 산촌에서 봄을 기다리는 가장 절실한 이유는 생존과 직결된 식량 구하기와 관련이 있다. 봄이 되어야 눈이 녹고 딱딱한 땅을 뚫고 나물들이 돋아난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 얼어붙은 대지 속에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동면해야 하는 것이 산촌사람들의 숙명임을 도손은 냉철하게 응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의 미덕인 검소와 근면함은 극한적인 자연 조건 속에서 터득한 환경의 산물인 셈이다. 인간은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떠올리게 된다. 저장했던 야채 등 식품이 다 떨어져 새로운 야채를 얻을 수 있는 봄을 기다리는 간절함은 도손이 말년에 쓴 동화집 『힘내기 떡(力餅)』(1940)의 단편 「미역 팔이(若布賣)」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⁴³⁾ 때 마침 찾아온 미역 장사꾼으로부터 사들인 미역으로 야채를 대신해서 식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을 묘사하고 있다. 또 다시 찾아온 봄은 한꺼번에 꽃향기를 피우며 겨우내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는 내용의 작품은 도손의 7년간의 고모로 체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었

43) 『若布はようござんすかねえ。』(中略) 5ヶ月もの長い冬を通り越した後、暮い野菜はすでに尽き、新しい野菜にはまだ早いといふ四月の頃には、わたしたちはこの若布売の来るのを待暮してゐるやうなものです。山椒の芽の青く萌え出す時分になつて、香ひの好い田楽などを臭いで見る心持は、山の上の冬籠もりをしたものでなければわかりません。『藤村全集 10』筑摩書房 p.492

을 것이다.

도손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을 기조로 나가노의 모든 것을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담아 놓았다. 서구 인상파 화가들의 야외 스케치인 사생화의 기법을 응용하여 나가노의 자연과 풍물을 문장에 옮기는 훈련을 한 것이다. 특히 대지와 맺어져 있는 농민들의 생활 모습과 주변의 자연을 그렸던 밀레의 영향은 상당히 컸다고 생각된다. 밀레가 자신이 본 것을 솔직하게 능숙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회화의 방법을 도손도 그대로 답습하려고 했던 흔적을 발견 할 수 있다.

2) 치쿠마강 주변의 지형

나가노현은 일본의 중앙에 위치한 바다가 없는 현이다. 서쪽에서 남쪽에 걸친 히다(飛驒)산맥(일명: 북알프스) 기소(木曾)산맥(일명: 중앙알프스) 아카이시(赤石)산맥(일명: 남알프스)이라고 하는 험한 산들이 이어진다.⁴⁴⁾ 바다가 없는 대신 길이가 214km나 되는 대하(大河) 치쿠마강이 흐른다. 야츠가타케(八ヶ岳)의 이어진 봉우리와 조신에츠(上信越) 화산군이 펼쳐져 온천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치쿠마강의 스케치』에는 화산지방 특유의 지형과 온천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화산인 아사마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이 고모로이다. 도손은 신흥 생활과 문학에 대한 새로운 꿈을 안고 고모로에 정착했다. 이때의 심정은 소설 『집』(1910)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⁴⁵⁾

또한 고모로는 북국가도(北国街道)⁴⁶⁾가 통하는 역참마을이다. 고모로마을을 벗어난 경사진 언덕에는 논밭들이 있고 그 밑으로 치쿠마강이 흐른다. 2장 「보리」에서 고모로의 전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44) 1881년에 간행된 일본안내 중에 히다산맥을 조사한 영국인 광산 기술자인 윌리엄 고렌드가 유럽의 알프스산맥과 닮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보이는 산맥 주변을 포함해서 일본 알프스라고 소개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후에 小島烏水가 히다산맥을 북알프스 기소산맥을 중앙알프스 아카이시산맥을 남알프스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일본 알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인 선교사 워터 웨스턴(Walter Weston)은 자신이 자주 일본 알프스에 올랐고 또 유럽에도 일본알프스의 이름을 소개했다. 上高地에는 웨스턴비가 있고 또 매년 웨스턴마츠리가 열리고 있다.

45) 東京を發つて自分の家の方へ向はうとする旅の途—岡—躑躅—日の光の色—何もかも、これから新しい生涯に入らうとする其で輝かないものは無かった。「家」『藤村全集 4』筑摩書房 p.88

46) 에도시대에 정비된 구가도로 현재도 나가노현과 전국 각지에 남아 있다. 에도시대의 가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북국가도는 사도(佐渡)의 금이 운송에 사용되었던 ‘금의 길’ 첩보지에 참배하기 위한 ‘신앙의 길’로 정비되어 중요시되었던 가도였다.

www.goodlucktoyama.jp/.../0606_GL_KaidoTokusyu.pdf

화산의 기슭에 어느 대 경사면을 일궈 만든 이 주변의 밭은 모두 돌담에 의해 떠받쳐 진다.(중략) 고모로는 이 경사를 따라 북국가도의 양쪽으로 가늘고 길게 발달한 마을이다.

火山の麓にある大傾斜を耕して作ったこの辺の田畠はすべて石垣によって支えられる。(中略) 小諸はこの傾斜に添うて、北国街道の兩側に細長く発達した町だ。

(その二`麥 畠` p.20)

위의 화산은 아사마산을 말한다. 또 돌담에 떠받쳐진 밭은 계단식 경작지를 말한다. 이 지방 사람들은 아사마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모로의 경사진 산비탈에서 보리와 쌀농사가 가능했던 것은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고 사계절 끊임없이 아사마산이 내어주는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모로가 평지가 없는 언덕에 위치한 마을 이라는 것은 3장 「산장」에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아사마산 쪽에서 떨어져 오는 작은 시내는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물레방앗간이 있는 움푹 패인 얇은 골짜기 쪽으로 나의 집 뒤를 가로지르고 하나는 바바우라 마을을 따라서 흐르고 있다.(중략) 원래 고모로 마을에는 평지라는 것이 없다. 조금 비라도 내리면 작은 시내까지 모래를 떠내려가게 할 정도의 지세이다. 나는 혼마치에 장보러 나갈 때에도 조합의 집에서 조금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浅間の方から落ちて来る細流は竹藪のところで二つに別れて、一つは水車小屋のある窪い浅い谷の方へ私の家の裏を横ぎり、一つは馬場裏の町について流れている。(中略) 一体 この小諸の町には、平地というものが無い。すこし雨でも降ると、細い川まで砂を押し流すくらいの地勢だ。私は本町へ買物に出るにも組合の家の横手からすこし勾配のある道を上らねばならぬ。

(その三`山 莊` p.29)

아사마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시내를 이루고 있는데 대나무 숲이 가로막아 물줄기가 두 갈래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형이 비탈이다 보니 경사가 급해서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진다. 적은 양의 비에도 모래가 흘러내릴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비탈진 마을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도손이 살았던 바바우라(馬場裏)는 북국가도가 지나는 중간쯤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묘사하고 있다.⁴⁷⁾ 『집』과 『힘내기 떡』에서 집 뒤쪽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애기를 해주고 있는데 도손은 자신이 살았던 고모로 바바우라와 그 주변 자연환경을 여러 작품에서 재현하고 있음을 본다.⁴⁸⁾ 또한 도손이 살고 있는 바바우라 마을을 조금 벗어난 근처에 있는 사쿠마을에 대한 묘사도 있다. 고모로 지역 전체 속에서 보이는 사쿠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더욱 입체적으로 치쿠마강 유역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

고모로에서 이와무라타 마을로 나오니 그 곳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고슈가도는 비교적 평탄한 넓은 골짜기를 가로 지르고 있다. 누런 가을다운 미나미사쿠 땅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온다. 치쿠마강은 이 눈밭이 많은 골짜기를 흐르고 있다.

小諸から岩村田町へ出ると、あれから南に続く甲州街道は割合に平坦な、広々とした谷を貫いている。黄ばんだ、秋らしい南佐久の領分が私達の眼前に展けて来る。千曲川はこの田畠の多い谷間を流れている。(その六`甲州街道` p.61)

고모로는 도신(東信)에 속하며 치쿠마강을 따라 사쿠분지(佐久盆地)와 우에다분지(上田盆地)로 나뉜다.⁴⁹⁾ 고모로는 사쿠분지를 포함하고 야즈카다케 등에 둘러싸인 고원 분지이다. 사쿠분지를 가로지르는 치쿠마강은 사쿠를 평야 지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고모로에서도 사쿠는 논농사를 주로 하고 바바우라가 있는 산기슭 마을 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치쿠마강이 가져다준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 덕분에 당시에든 벼농사가 주를 이루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치쿠마강은 치치부산치(秩父山地)에 있는 고부시다케(申武信岳 2475m)의 근원지에서 출발하여 나가노현 도신(東信)을 북상하여 신에츠(信越)국경에서 시나노강(信濃川)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다시 나가노와 에치고 평야를 종단하고 일본해

47) 산키치의 집은 옛 가도의 뒤편에 자리하여 고풍스런 마을들이 이어진 곳에 있었다.

시마자키 도손(저) 노영희 옮김(1990) 『집』(주)민문고 p.72

48) 뒤 쪽의 개울은 옆집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서 한 번 돌 사이로 굽이돌고 산키치집 쪽으로 와서 다시 흐른다. 수초를 넘어서 흐를 정도로 물이 많아진 조그만 개울가에 허리를 구부리고서 산키치는 잠에 취한 얼굴을 닦았다. 시마자키 도손(저) 노영희 옮김(1990) 『집』(주)민문고 p.84

その畠の横手には、家の勝手口から通ふことの出来る細い流れもあります。遠く山の裾の方から引いて来てある水です。毎朝わたしはその細い流れへ顔を洗ひに行きます。そこは洗濯することを禁じられてゐるやうな場所ですが、どうかするとこまかい砂が水にまじつて流れて来てゐて、手にも掬へないことがあります。清水と言ひたいが、飲用水には使ひがたい。そんな水ではありましたが、都会から行つたわたしは餓ゑ渴いた旅人のやうにして、その荒らく冷たい水の中へ自分の兩手を浸し、そこから湧きあがる新しい歡びを覚えました。

『力餅』『藤村全集 10』筑摩書房 pp.489-490

49) 나가노현은 18시(市) 30정(町) 54촌(村)이 있고 도신(東信)·호쿠신(北信)·슈신(中信)·난신(南信)의 4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로 흘러 들어간다.⁵⁰⁾ 강물은 흘러 지나는 유역마다 다른 기후와 풍토를 가지고 있고 다채로운 삶과 지역문화를 볼 수 있다. 강물이 지나는 곳의 지형에 따라 유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 험한 계곡의 상류를 거쳐 흘러내려 오는 물은 하류 쪽이라고 해도 속도가 줄지 않는다. 물의 세기가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계곡이 굽이지고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쿠마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천변이나 굽이져 흐른다.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강의 복잡 미묘한 모습을 도손은 끈기 있게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날씨가 더워지니 나는 자주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에 헤엄치러 오는데 스미다강 등에서 헤엄쳤던 것을 생각하면 여울부터 다르다. 파랗고 맑은 강물은 기름처럼 흐르고 있어도 그 여울이 격렬함으로 말하자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강상류 쪽을 보면 어두운 바위 그늘에서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흘러온다. 강 하류 쪽은 또 화살처럼 빠르다. 그것이 고리부치의 붉은 절벽에 부딪혀 상당한 기세로 떨어져 온다. 웬 걸 이 여울이 이쪽 바위에서 건너편 절벽 아래까지 똑바로 부딪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맑은 물속에는 큰 바위가 숨어있는 것이 있다. 선불리 우물우물 하다보면 떠내려 가버린다. 그래서 웬만큼 상류 쪽에서라도 헤엄쳐 가지 않으면 목적하는 바위에 위에 올라갈 수 없다.

暑くなってから、私はよく自分の生徒を連れて、ここへ泳ぎに来るが、隅田川などで泳いだことを思うと水瀬からして違う。青く澄んだ川の水は油のように流れていても、その瀬の激しいことと言ったら、眩暈がする位だ。川上の方を見ると、暗い岩陰から白波を揚げて流れて来る。川下の方は又、矢のように早い。それが五里淵の赤い崖に突き当って、非常な勢で落ちて行く。どうして、この水瀬が是処の岩から向うの崖下まで真直に突切れるものではない。それに澄んだ水の中には、大きな岩の隠れたのがある。下手をマゴつけば押流されて了う。だから余程上の方からでも泳いで行かなければ、目的とする岩に取付いて上ることが出来ない。

(その四`中 棚` p.42)

고모로의숙의 교장의 별장인 나카다나(中棚) 밑에서 내려다 보이는 치쿠마강가로 헤엄치러 가서, 그곳에서 도손은 자신이 메이지학원 시절 도쿄의 스미다강에서 수영하던 추억을 떠올린다. 파랗고 맑은 치쿠마강을 보면서 탁하고 수박껍질 등 각종 쓰레기가 떠다니는 스미다강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스미다강에 대한 묘

50) 千曲川・信濃川の延長は367kmで日本第一の張河である。明治中期まで越後川口で魚野川と合流するまで、千曲川であった。ところが、信越後境という行政界で河川名が変わり、現在の千曲川の長さは214kmになっている。中村守 (2006) 『千曲川』 信濃毎日新聞社 p.2

사는 『버찌가 익을 무렵에』(1918)에 잘 나타나 있다.⁵¹⁾ 당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수상교통이 용이하고 공업용수를 취하기 쉬운 스미다강 유역에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번잡한 도시를 떠나 신선하고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문학 인생을 찾으려 했던 도손에게 치쿠마강은 스미다강과 확연히 대비되어 비추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치쿠마강의 근원지인 상류지역에 대한 묘사는 6장 「고원」에 잘 나타나 있다.

「개어가는 고원의 안개의 조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입니다. 조금 기슭이 보이는 야츠가오카가 점점 험한 암석을 드러내고 마침내 붉은색의 빛을 띠 정상까지 보일 무렵에는 그림자가 산에서 산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중략) 오토코야마, 긴부잔, 운나야마, 고부시가타케 등의 산들도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멀리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이 치쿠마강의 근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강 위의 마을입니다. 치쿠마강은 아침 해를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중략) 고원의 가을은 지금입니다. 둘러보면 나무숲도 군데군데 가지라고 하는 가지는 남향으로 뻗어 우거지고 겨울에 부는 거센 바람도 상상된다. 자작나무는 대부분 잎이 떨어지고 높이가 하늘을 찌르고, 가는 잎의 버드나무는 웅크린 듯 낮게 숨어 있다. 가을의 빛을 보내는 바람이 소란스럽게 불어오면 풀은 노란 파도를 일으키며 움직이고 떡갈나무 잎도 뒤집혔습니다.(중략) 이 고원이 목장에 적합한 것은 여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은 마필을 보는 일도 적지만 구릉 사이에는 놀며 돌아다니고 있는 말의 무리도 멀리 보인다.

「晴れて行く高原の霧の眺めは、どんなに美しいものでしょう。すこし裾の見えた八つが岳が次第に険しい山骨を顯わして来て、終いに紅色の光を帯びた巔きまで見られる頃は、影が山から山へ映しておりました。(中略) 男山、金峯山、女山、甲武信岳、などの山々も残りなく顯れました。遠くその間を流れるのが千曲川の源、かすかに見えるのが川上の村落です。千曲川は朝日をうけて白く光りました」(中略) 高原の秋は今です。見渡せば木立もところどころ。枝という枝は南向に生延びて、冬季に吹く風の勁さも思いやられる。白樺は多く落葉して高く空に突立ち、細葉の楊樹は踞るように低く隠れている。秋の光送る風が騒がしく吹渡ると、草は黄な波を打って、動き靡いて、柏の葉もうらがえりました。(中略) この高原が牧場に敵するには、秣が多いからとのことだ。今は馬匹を見ることも少いが、丘

51) 隅田川の水の中へでも自分の身体を浸したいと思付いた。(中略) 河蒸気の残して行く高い波がやってきた。舟から離れて泳いでいるものはいずれもそれを迎えようとして急いだ。波は山のように持上って来る。(中略) 旧兩國の橋の下の方から渦巻き流れて来る隅田川の水は潮に混ざって、川の中を温暖かく感じさせたり冷たく感じさせたりした。浮いて来るごみの塊や、西瓜の皮や、腐った猫の死骸や、板片と同じように、気に掛るこの世の中の些細な事は皆ずんずん流れて行くように思われた。島崎藤村(1984) 『桜の実の熟する時』新潮社 pp.61-63

陵の起伏した間には、遊び廻っている馬の群も遠く見える。

(その六 `高原の上' pp.65-68)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고원 노베야마가하라(野辺山が原)가 밝아오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험한 암석과 붉은색의 정상, 산에서 산으로 비치는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는 표현은 서사적이고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빛의 처리, 깊이 있는 그림자의 묘사 속에 고원의 깊은 계곡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 그 내부에서 시작되는 치쿠마강의 근원지는 나가노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수를 제공해 숙연한 감정까지도 생기게 한다. 이 부분에서 밀레의 영향이 보인다. 밀레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화폭 안에 자연을 그대로 담으려고 했다. 자연을 더욱 깊고 분명하게 관찰하고 사물의 움직임조차 상황에 맞게 빛과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밀레의 영향을 받은 도손은 나가노 고원의 웅장함과 험한 산세를 간결한 문장으로 옮겨 놓았다.

또한 구릉 사이에 놀며 돌아다니는 말의 무리를 원근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목초지가 많은 고원의 지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묘사했다. 높은 아사마산 주변에 대한 묘사는 5장 「산속의 온천」에서도 관찰·기록되어 있다.

온천지에도 다양함이 있지만 그 산의 온천은 각별한 멋이 있다. 우에다 마을에 가까운 벳쇼온천 등은 개방된 편이어서 여러 가지 편리함도 갖춰져 있다. 그러나 산 속 온천의 느낌은 오히려 불편한 다자와 레이센지 등에서 맛볼 수 있다.(중략) 이 고장 사람이 된장과 쌀을 가지고 노고를 잊으러 간다고 하는 장소이다. 자취하는 온천손님이 많다.(중략) 다음날은 아침안개가 낀 계곡에 아침 햇살이 가득차고, 가까운 산도 먼 곳에, 집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안개보다도 하얗게 보였다. 아사마는 숨었다. 산 저쪽은 푸른빛을 띤 회색으로 빛났다. 하얀 구름이 산맥을 따라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다.

温泉地にも種々あるが、山の温泉は別種の趣がある。上田町に近い別所温泉などは開けた方で、随って種々の便利も具わっている。しかし山国らしい温泉の感じは、反って不便な田沢、靈泉寺などに多く味われる。(中略) 土地の者が味噌や米を携えて労苦を忘れに行くという場所だ。自炊する浴客が多い。(中略) 翌日は朝霧の籠った谿谷に朝の光が満ちて、近い山も遠く、家々から立登る煙は霧よりも白く見えた。浅間は隠れた。山のかなたは青がかった灰色に光った。白い雲が山脈に添うて起るのも望まれた。

(その五 `山の温泉' pp.46-48)

나가노에는 다양한 온천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가에 가까운 개방된 온천이 있는가 하면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온천도 있다. 도손은 깊은 산속에 있는 다자와 온천에서 운치를 발견하고 있다. 계곡물이 흐르고 아침이면 온천의 열기로 안개가 자욱한 선경을 포착하고 있다. 아사마산도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회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가노의 자연이 지닌 독특한 묘미를 수채화처럼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자연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 산 속의 온천을 찾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처럼 장기간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식과 부식을 가지고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온천이라는 자연이 내어주는 뜨거운 물은 그들에게는 경이롭고도 귀중한 것이다. 5장 「9월의 논밭길」에서 “아아 또 아사마가 탄다며 고장의 사람들은 서로 말하는 것이 버릇이다.”⁵²⁾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화산은 폭발하여 재를 쏟으면 인간을 덮치는 무서운 재앙일수도 있지만 그런 화산이 있기에 온천이 있는 것이다.

도손은 고모로에서 살면서 그 일대의 자연을 온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기 위해 산속에 자리한 험난한 온천까지도 발길을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손은 다자와 온천에 며칠 머무는 동안에도 시간에 따라 느낌을 달리하는 아사마산과 계곡의 물소리와 달빛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다. 도손은 굳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문장 안에 계절감과 지형의 특징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모습까지 모두 담고 있다. 마치 한 폭의 수묵 산수화를 보는 듯한 묘사다.

3) 구름 관찰의 정밀성

도손은 고모로에 정착한 후 사생훈련의 대상으로 구름에 주목한다. 도손이 구름에 관심을 가지고 구름을 관찰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러스킨의 『근대화가론』의 영향이 컸다. 러스킨의 저술 『근대화가론』(총5권)의 제1권 3장 4절은 ‘구름’에 대해 논하고 있다. 도손은 이를 길잡이 삼아 구름을 관찰하여 일기로 기록한 것이다. 마침내 1900년 8월에는 구름 관찰 일기를 정리한 「구름」이란 작품을 『천지인(天地人)』(제40호)에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작품은 이후에 4번째 시집 『낙매집』에

52) 5장 「9월의 논밭길」 p.52

수록되었다.

“기행문 쓰는 것을 여행의 친구로 삼고, 시를 많이 쓰기도 하고 1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산수만을 연구했던 것들이 그 다섯 권 중의 한 권에도 미치지 못했다”⁵³⁾라는 도손의 말처럼 러스킨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러스킨은 미술의 기초에 해당하는 소묘(드로잉)는 자연의 대상을 정하고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옮기려면 반드시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⁵⁴⁾ 또한 러스킨은 개인의 영탄적 서정보다 훈련을 통한 관찰을 강조했다. 그림에서 밑그림의 윤곽이 뚜렷해야 붓으로 색채를 채울 수 있듯이 도손은 새로운 문체를 시도함에 있어 첫 단계로 사생의 기초를 배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스킨은 『근대화가론』에서 고대화가들의 구름에 대한 사상은 전부 똑같다며 비웃는다.⁵⁵⁾ 도손 또한 『근대화가론』을 읽기 전까지는 구름에 대해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화가들의 산수화·시문·불교회화·건축·조각·도자기 등의 예술작품 속에서 구름은 정형화되고 추상적이며 틀에 박힌 듯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름을 표현하려면 구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었다. 단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확실하지 않은 감흥에 만족스러워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⁵⁶⁾

『근대화가론』 제1권 제3절 「구름의 진실」에 나오는 구름은 과학적 관찰기록이다. 러스킨이 미술을 논하면서 언급한 구름에 대한 해석은 도손을 구름관찰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⁵⁷⁾ 도손의 구름 관찰의 결과는 「구름」이란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고 『치쿠마강의 스케치』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단편적인 구름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는 『치쿠마강의 스케치』의 9장 「설국의 크리스마스」와 『낙매집』에 수록된 「구름」을 대조하며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3) 「落每集」 『藤村全集 1』 筑摩書房 p.252

54) 솔로몬 피시맨·민주식 옮김(1999) 『미술의 해석』 제1장 존 러스킨 pp.18-55 참조

55) 彼らは雲を見るのに、彼らの大目的である欺瞞のために役立たないものを見るのと同じように不注意に鈍感で見た。確かに雲には丸みのある個所があるし、美しいものをデザインするより円をざっと描く方が容易なものも分かり、子どもの蕪の彫刻がアポロの頭部に似ている程度にしか、自然の雲に似ていないような球状の概念図刑を絶えず繰り返し描くことで満足し、習作を製作するために座っていた。

ジョン・ラスキン・内藤史郎訳(2003) 『芸術の真実と教育近代画家論・原理編 I』 法蔵館 pp.233-234

56) 「落每集」 『藤村全集 1』 筑摩書房 pp.253-254 참조

57) われは近代画家論第一の巻、第三章、雲を論ずるの四節を翻して、その精緻なる觀察を伝へむと思ふこと屢なりき。「落每集」 『藤村全集 1』 筑摩書房 p.252

도손은 구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추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크리스마스 날 직접 나가노관측소를 방문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관측소의 기술자 집을 방문하니 남편은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고타츠를 찍으면서 기상학의 이야기며 문학상의 상세한 인증담 등으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러스킨의 근대화가 속에 있는 구름의 연구 이야기도 나왔다. 러스킨이 구름을 세 개의 층으로 나뉘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구층의 분류에 까지 이른 오늘날의 구름형태의 연구는 발달된 것이다.

例の測候所の技手の家を訪ねると、主人はまだ若い人で、炬燵にあたりながらの気象学の話や、文学上の精しい引証談なぞが、私の心を楽ませた。ラスキンが「近代画家」の中にある雲の研究の話なぞも出た。ラスキンが雲を三層に分けた頃から思うと、九層の分類にまで及んだ近時の雲形の研究は進んだものだ。

(その九 `雪国のクリスマス' p.101)

구름관찰을 위해 나가노 관측소를 방문한 도손은 기술자와 폭넓은 화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식을 갈구하는 도손과 문학까지 아우르는 기술자의 해박함이 잘 나타나 있다. 러스킨 시대에는 구름의 층위가 3단계였는데 기술과학의 진보에 의해 구름의 층위가 9단계로 세분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도손은 구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고 생각된다. 과학에 근거한 구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문학에 접목하려는 도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최초의 구름 분류 방법은 영국의 기상학자인 루크 하워드가 1803년에 고안해 낸 분류체계에서 유래한다.⁵⁸⁾ 이것을 토대로 러스킨은 3개의 구름층을 『근대화가론』 제1권 제3절의 「구름의 진실」 속에 자세히 나와 있다. 러스킨은 구름을 세운(細雲:Cirrus)·층운(層雲:Stratus)·우운(雨雲:Raine-Cloud)으로 구분하였다. 러스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구름층도 더욱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손의 구름은 러스킨의 설명이 미치지 못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구름을 더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춘운(春雲)·추운(秋雲)·하운(夏雲)·소운(燒雲)·조운(朝雲)·모운(暮雲) 6개를 더해 9종류로 분류하여 관찰한 것이다. 도손은 「구름」에서 러스킨의 구름 묘사 방법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시간 축을 보탬

58) 권운(Cirrus)·적운(Cumulus)·층운(Stratus)으로 분류하여 19세기 구름 분류의 기초를 이루었다. 『브리테니커 사진 2』(1996) p.337

다고 볼 수 있다. 「구름」의 구성을 약 1년 동안의 일기형식으로 맞춘 것 또한 러스킨의 구름관찰 기간을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러스킨은 인습에 얽매인 아카데미 미술을 비판하며 예술의 모방과 표현을 동시에 강조했다. 이러한 러스킨에게 감화를 받은 도손은 『근대화가론』에 나오는 ‘구름’의 표현방법을 모방하며 자신만의 사생의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구름이 많은 것은 겨울이지만, 그러나 단조롭죠. 변화가 많다면 역시 여름이지요. 여름은-구름의 양에 있어서는-겨울의 다음일까. 구름의 묘미로 말하자면 나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일 거 같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자는 말하고(중략) “저 구름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라고 나에게 가리키며 물었다. 나도 나그네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틈틈이 구름 일기 등을 써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전문가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금 대답에 곤란함을 느꼈다.

「雲の多いのは冬ですが、しかし単調ですね。変化の多いと言ったら、矢張夏でしょう。夏は一雲の量に於いては一冬の次でしょうか。雲の妙味から言えば、私は春から夏へかけてだろうと思いますが。。。」 こう技手は言って、(中略)「あの雲は何と御覧ですか」と私に指して尋ねた。私も旅の心を慰める為に、すこしばかり雲の日記なぞをつけて見ているが、この的確に専門家から問を出された時は。一寸返事に困った。
(その九 `長野測候所` pp.102-103)

도손이 나가노관측소를 방문한 시기는 고모로에서 처음 맞이했던 겨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관측소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질문을 받고 대답에 곤란을 느꼈던 것은 구름을 관찰하며 연구하던 중이었으므로 아직 공부의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기술자는 계절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구름을 관찰한 것이며, 관찰한 결과를 방문객인 도손에게 말해주고 있다. 도손은 「구름」에서 여름에 구름의 변화가 많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초여름 구름의 양상은 나무 끝의 파란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초여름의 구름은 하늘의 어린잎이다. 한여름은 양기가 한계까지 달했을 때이고

59) その構図の計画に一年の歳月をかけて、よく調査された雲の不均衡や、極めて繊細な相徴性や、最も念の入った対照的をもって、一つの絵画の配置を思案したかのように、それは巧み纏められているのが、あなたには分かるだろう。
ジョン・ラスキン・内藤史郎訳(2003) 『芸術の真実と教育近代画家論・原理編 I』 法蔵館 p.233

만물화육(万物化育)의 절정, 해가 가깝고, 열이 많고 지상에서 증발하는 수분이 풍부한 것은 직사하는 빛의 힘이다. 천지는 정말로 분투와 열심히 활동하는 무대이고 생식과 경쟁의 세계이다.

初夏の雲のまさり行くさまは、梢の青葉茂り行くがごときなり。初夏の雲は天の若葉なり。盛夏は陽気のきはまれる時にして万物化育の絶頂、日近く、熱多く、地上より蒸発する水分の豊かにして直射する光の力ある、天地はまさに奮闘と鋭意と活動との舞台なり、生殖と競争との世界なり。 (『雲』『落梅集』 p.263)

도손은 초여름의 구름과 한여름의 구름을 구분하고 있다. 초여름의 구름을 어린 잎사귀에 비유하고 있으나 한여름의 구름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증발하는 수분이 풍부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왕성한 구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다. 도손은 이처럼 하늘의 구름과 땅위의 초목을 대비하며 조응관계로 만들고 있다. 구름과 초목은 그 성질과 조직이 각각 다르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천소장(變遷消長)’하는 양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뜨거운 햇살과 더불어 모든 작물이 하루가 다르게 다투어 성장하고 들녘이 초록으로 넘쳐나는 여름에는 구름도 변화가 무쌍하다고 표현했다. 천지를 경쟁의 세계로 묘사한 것은 척박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힘든 삶을 연상시킨다. 여름은 농사일이 가장 바쁘고 장마를 대비해야 하고 누에도 쳐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잘 준비해야 긴 겨울을 지낼 수 있다. 늘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나가노 사람들의 생활터전과 자연의 모습을 대비하며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구름은 자연 속에 있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구름을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의 구름 또한 계절의 변화와 함께 묘사했다.

동지가 가까워지면 구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수증기 때가 가는 선의 집합처럼 추운 하늘에 걸려있어 그 호젓하고 쓸쓸한 정취는 일몰 등에 특히 내 마음을 끈다. 그 때는 처마의 고드름도 점차로 길어져서 1척 남짓 되는 것도 있다.

冬至近くに成れば、雲ともつかぬ水蒸気の群が細線の集合の如く寒い空に懸り、その蕭条とした趣は日没あなぞに殊に私の心を引く。その頃には、軒の氷柱も次第に長くなって、尺余に及ぶものもある。 (その九`雪国のクリスマス` p.100)

12월 7일 저물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면 석양 위에 걸쳐 있는 겨울 구름은 갈

색, 아니면 갈색을 띠는 적색, 낮게는 어두운 보라색, 또한 그 밑에는 어두운 회색을 띠고 남쪽 하늘 저 멀리에는 농염의 구분은 있지만 전부 보라색과 회색을 섞은 듯한 구름을 보았다. 예를 들어 화공이 제일 먼저 종이 한 면에 회색을, 그 위에 적색 보라색 아니면 갈색을 질게 또는 얇게 색칠한 것처럼 보인다. 12월 중순 부터는 하늘은 춥고 빛은 옅고 치쿠마강의 흐름도 얼음에 막혀서 아사마의 연기도 숨어버려 보이지 않고.(중략)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적어져서 베투못도 얼었다.

十二月の七日、暮れ行く空のさまを望めば、入日の上にかゝる冬雲は茶の色、もしくは茶がゝりたる赤色、低きは暗き紫色、更に低きは暗き灰色にして、南天のかなたには濃淡の分ちこそあれ凡て紫色と灰色とをまじへたる雲を見たりき。たとへば畫工が先づ一面の灰色を紙上に置きて、その上に赤色、紫色、もしくは茶の色を濃くも淡くも彩りたらんがことくなりき。十二月の中旬よりは天寒く光薄く、千曲川の流も氷に閉され、浅間のけぶりもかくれて見えず、(中略)雲の眺めはすくなくして硯の海も凍りぬ。
(「雲」『落梅集』 pp.261-262)

위의 인용은 깊어가는 겨울날 해질 무렵의 구름을 관찰한 것이다. 앞의 것은 구름이라기보다 수증기 때라고 표현한다. 구름의 직선적 이미지와 처마의 고드름의 모습은 날카롭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전해지는 이미지는 쓸쓸함이다. 앞에서 보았던 여름의 구름과는 느낌이 매우 다르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낙매집』에 수록된 「구름」은 미묘한 색채까지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풍경화를 그릴 때 시간 때와 관찰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의 표현에 끈기 있게 매달렸다. 일몰에는 시간의 흐름이 순식간에 그 변화가 포착된다. 그만큼 미묘하며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 도손은 문장으로 이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러한 미묘한 색채의 표현이 문장에서 가능했던 것은 고모로의숙의 동료 교사였던 미야케 가즈미(三宅克己)의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구름일기를 쓰기 시작할 무렵부터 도손은 서양화가인 미야케와 친분을 쌓는다. 두 사람은 함께 러스킨의 『근대화론』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한편 서양의 인상주의 화가 특히 밀레와 코로 등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미야케는 밀레와 코로의 작품에 쓰인 색채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다. 도손은 미야케와의 친교 덕택에 색채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구름」 맨 마지막 문장에서 밝히고 있다.⁶⁰⁾

60) 『藤村全集 1』 筑摩書房 p.264

러스킨의 『근대화가론』의 사생방법과 밀레와 코로 등의 사생방법 등의 영향 하에 도손은 모방과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사생의 방법을 만들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3. 인물과 동물묘사의 특징

1) 풍토와 인간의 기질 응시

풍토에 대해 학문적으로 다룬 일본의 저서로는 와츠지 데츠로(和辻哲朗)⁶¹⁾의 『풍토(風土)』가 있다.⁶²⁾ 와츠지는 풍토를 인간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그는 연구의 목적을 인간존재의 구조계기로서의 풍토성을 밝힌다고 말한다. 주체적 인간표현으로서의 풍토성이며, 자연환경으로서의 풍토가 아니다. 와츠지는 “내가 풍토성 문제에 천착하게 된 것은 1927년 초여름 베를린에서 하이데거⁶³⁾의 『존재와 시간』을 읽었을 때였다. 인간존재의 구조를 시간성으로 파악하는 시험은 나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간성은 인간의 근원적 존재구조로서 포착될 수 없는가”⁶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역사성은 풍토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도손은 만년에 와츠지와 깊은 교류를 가지게 된다. 와츠지는 『문학계』 동인 기무라 소타(木村艸太:1889-1950)의 권유로 1911년 가을 아사쿠사(淺草) 신가타마치(新片町) 도손네 집을 처음 방문한다. 친교를 맺은 계기는 가토 시즈코(加藤靜

61) 와츠지 데츠로(1889-1960) : 효고현 히메지 생. 동경대 철학과 졸업. 윤리학 담당. <도덕사상 연구>를 위해 독일 유학.

62) 『풍토』 : 1928년 9월-1929년 2월까지의 강의노트를 토대로 한 저서이다. 초판(1935년)과 개정판(1943년)이 있다. 저자는 개정판 신간(1943)에서 “처음 이 책을 쓸 때는 좌경사상이 유행할 때라서 좌경사상에 대한 논박이 섞여있었으나 개정신간에서는 순수한 풍토에 대한 고찰로 고쳐 썼다고” 말한다. 和辻哲朗(2013) 『風土』 岩波文庫 p.5-6

63) Heidegger Martin(1889-1976) :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 존재론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존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 즉, 현존재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고 다른 것과 관계있는 관심으로서의 존재이며 이 관심이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에 직면하여 유한적인 시간성 속에 있다는 것이 명확히 되어 본래의 자기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임석진외 40인(2012) 『철학사전』 도서출판 중원문화 p.1067

64) 和辻哲朗(2013) 『風土』 岩波文庫 pp.3-6

子)의 친구 이부키 노부코(伊吹信子)의 중개이다. 노부코의 남편과 와츠지는 동창생이어서 시즈코도 와츠지 집에 자주 다녔으며 가토 시즈코가 나중에 도손과 결혼하게 되면서 친교는 깊어졌다. 와츠지는 도손의 『동트기 전(夜明け前)』(1935)을 읽고 무한한 감동을 전했으며, 도손의 경우는 와츠지의 『풍토』를 애독했다고 한다.⁶⁵⁾ 두 사람 모두 일본적 풍토에 깊은 관심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끌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치쿠마강 스케치』는 두 사람이 교류하기 이전의 작품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예로부터 자연과 친화적인 문학의 전통을 지녔다는 것은 풍토성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 한번 넘어가기도 힘들지만 넘어가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속에서 많은 전설과 풍습이 나오고 인간의 기질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나가노는 번명(藩名)이 시나노국(信濃国)이었고 그 경계가 십주(十州)로 둘러싸여 있었다.⁶⁶⁾ 지금은 군마현을 비롯 8개의 현으로 경계를 이루고 내륙에 위치한 현이다.⁶⁷⁾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문화적 특질을 가진 채 다른 현들과 접하고 있다. 나가노 지역 안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사람들의 말투와 성격, 기질이 다르다. 또한 남북으로 길어서 북쪽 시나노(北信)는 적설이 많고 추위가 심한 것에 비해 남쪽 시나노(南信)는 기후가 비교적 온난하다. 북쪽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남쪽 사람들은 말투가 온유하고 여유를 지녔다는 기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후와 풍토의 차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상과 기질을 관찰한 묘사가 『치쿠마강의 스케치』 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메이지 이후 철도의 개설로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 해져 왕래하기 힘들었던 폐쇄적 공간이나 다름 없었던 산고장인 나가노에도 외부 사람들과 상인들이 드나드는데 그러한 변화도 포착하여 보여주고 있다.

65) 『島崎藤村事典』 p.496 ‘와츠지 테즈로’ 참조

66) 「信濃国ハ東山道中西ニ位セル大国ニシテ、東ハ上野・武蔵・甲斐、西ハ美濃・飛驒、南ハ駿河・遠江・三河、北ハ越中・越後ノ十州ニ跨リ…」とある。市川健夫 小林英一編著(1984) 『県歌信濃の国』 銀河書房 p.23

67) また、「越後(新潟県)、上野(群馬県)、武蔵(埼玉県)、甲斐(山梨県)、駿河と遠江(静岡県)、三河(愛知県)、美濃と飛驒(岐阜県)、越中(富山県)の十カ国・八県に境を接している。」とある。市川健夫 小林英一編著(1984) 『県歌信濃の国』 銀河書房 p.40

특히 도손의 고모로 생활 중에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도 매우 중요한 공부다. 전통문학에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자연 속에 녹아있는 점경(點景)이다. 기질과 같은 인간의 내면성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도손은 산촌 사람들의 삶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힘든 농사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생활상과 대화 하나하나 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진지함을 보인다. 『치쿠마 강 스케치』는 사람들의 대화를 직접화법으로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오랜 도시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고향의 체취를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태도에는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노력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인간의 내면관찰은 근대 과학정신이기도 하며 나아가 자아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진다. 다음은 농부의 생활을 관찰한 문장이다.

보아하니 개방적이고 검소하고, 간단하고, 반은 야외에 속속들이 다 드러내 놓은 것 같은 것이 그들의 생활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숨어 있는 복잡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음을 생각한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농기구를 손에 들고, 같은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들. 예를 들면 그들의 생활은 매우 수수한 잿빛이다. 그 잿빛에 몇 가지 길이 있는지 모른다. 나는 학교일 틈틈이 나 스스로도 괭이를 들고 조금이지만 야채를 길러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농부를 좋아하는 나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일을 기대하고 있다.

見たところ、Openで、質素で、簡単で、半ば野外にさらけ出されたようなのが、彼等の生活だ。しかし彼等に近づけば近づくほど、隠れた、複雑な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を思う。同じような服装を着け、同じような農具を携え、同じような耕作に従っている農夫等。譬えば、彼等の生活は極く地味な灰色だ。その灰色に幾通りあるか知れない。私は学校の暇々に、自分でも鍬を執って、すこしばかりの野菜を作ってみているが、どうしても未だ彼等の心には入れない。こうは言うものの、百姓の好きな私は、どうかいう機会を作って、彼等に近づくことを楽しみとする。

(その七 `農夫の生活` pp.77-78)

단조로운 농촌에서의 농부들의 삶이라는 것이 외관상으로 언뜻 보기에는 다 드러나 있어서 획일적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도손의 눈은 피상적 관찰에 머무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인간이란 개개인마다 나름의 고뇌가 있으며 삶의 역사가 있다는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도손은 그들의 단순한 삶을 잿빛이라는 색

채로 표현했다. 잿빛은 농부들과 가장 어울리는 색채가 되고 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흙과 가장 가까운 색이 실용적이며 또한 노동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잿빛으로 바뀐다. 잿빛은 아사마 산 중턱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는 색이다. 그래서 도손의 수필에는 머리카락의 색조차도 잿빛으로 표현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회색은 수수함과 근면함 척박함 등 많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상징으로 보인다. 외관은 단순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질곡으로 이어져있다는 통찰이야말로 보이는 것을 넘어 내면까지 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도손은 이러한 노력만으로 그들의 내면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겸허함도 드러내고 있다. 텃밭을 가꾸는 정도의 농사를 지었던 도손으로서는 진정한 농부의 질곡의 삶을 느낄 수 없다는 뼈아픈 성찰이 보인다.

다음은 고모로 사람들의 기질과 우에다 사람들의 기질을 비교한 것이다.

우에다는 고모로의 견실함과 반대로 민첩함과 닮았다는 지역이다. 이 일반적인 기풍이라는 것도 즉 지세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고모로와 같은 모래땅의 경사에 돌담을 쌓고 계다가 힘이 드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검소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추운 기후와 마른 땅은 자연히 근면한 사람들을 만들어 냈다. 여기의 밭에서는 조슈(上州)와 같은 풍부한 야채는 얻을 수 없다. 딱딱한 땅무의 단무지를 먹으며 밤낮 된장국에 만족하며 일하는 지역이 고모로이다.

上田は小諸の堅実にひきかえ、敏捷を似て聞えた土地だ。この一般の気風というものも畢竟地勢の然らしめるところで、小諸のような砂地の傾斜に石垣を築いてその上に骨の折れる生活を営む人達は、勢い質素に成らざるを得ない。寒い氣候と痩せた土地とは自然に勤勉な人達を作り出した。ここの畠からは上州のような豊富な野菜は受取れない。堅い地大根の沢庵を噛み、朝晩味噌汁に甘んじて働くのは小諸である。

(その九`屠牛の一` pp.104-105)

우에다는 우에다 분지를 가로지르는 치쿠마강의 중류에 속하기 때문에 고모로 보다는 비교적 땅이 비옥한 지역이다. 고모로는 토질이 좋지 않고 자갈돌이 많은 비탈진 언덕이기 때문에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고모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생존을 이어가다 보니 거기에 맞는 기질이 생겨났다고 도손은 파악하고 있다. 다윈의 적자생존의 법칙을 연상하게 된다. 척박한 풍토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근면하고 검소해야 한다. 땅무의 재배법을 발견한 것도 고모로라는 풍토(地勢)에 적응한 결과이다. 부지런

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곳이 고모로 이다. 이러한 기후와 지형 즉, 풍토는 인간의 기질을 형성한다는 관점을 도손은 내비치고 있다. 고모로 사람들은 허례허식을 멀리한다.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다. 고모로 사람들의 무뚝뚝함과 무례는 척박한 풍토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해심을 보이고 있다.

십년이나 옛날에 유행했던 것 같은 가문의 무늬가 새겨진 하오리를 경사스런 날도 장례식 날에도 착용해서 그것을 창피해 하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허름한 옷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고모로의 양반들이다. 하지만 나는 고모로의 소박함도 일종의 형식주의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다른 곳에서 입고 온 부드러운 것을 벗고 그것을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고모로에 들어오는 젊은 모반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컨대 겉은 공허하게 보여주고 그 진짜는 풍부하게 겉은 무뚝뚝해도 그 진짜는 친절함을 존중하는 것이 고모로 이다.

十年も昔に流行ったような紋付羽織を祝義不祝儀に着用して、それを恥ともせず、否むしろ粗服を誇りとするが小諸の旦那衆である。けれども私は小諸の質素も一種の形式主義に落ちているのを認める。私は、他所で着て来たやわらか物を脱いでそれを綿服に着更えながら小諸に入る若い謀反人の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要するに、表面は空しく見せてその実豊かに、表面は無愛想でもその実親切を貴ぶのが小諸だ。
(その九 `屠牛の一' p.105)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고모로 사람들의 기질임을 알 수 있다. 내실을 중시하고 겉치레는 중요시 않는 태도에서 고모로 사람들의 내면화된 기질을 엿볼 수 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고 온 새 옷을 벗고 일부러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올 정도라는 말에서 그들의 뿌리 깊은 폐쇄성을 본다. 이러한 기질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완고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역사성 풍토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 사라져도 될 때임에도 고모로 사람들은 산 고장 특유의 폐쇄성을 갖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며 문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하지만 무뚝뚝한 모습 뒤에 들어있는 친절함은 시골사람 특유의 순수함이라는 미덕 또한 도손은 말하고 있다.

괘이를 어깨에 메고 언덕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남자

도 있었다. 호미를 두 자루 가지고 짓먹이 아이를 등에 태우고 “수고 하셨수”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여자도 있다.

鍬を肩に掛けて、岡づたいに家の方へ帰って行く頬冠りの男もあった。鎌を二挺持ち、乳呑児を背中に乗せて、「おつかれ」と言いつつ通過ぎる女もあった。

(その七`収穫` p.81)

저편 언덕길을 돌아가는 사람도 어둡게 보였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서둘러 지나가는 자도 있었다.

彼方の岡の道を帰る人も暗く見えた。「おつかれでござす」と挨拶そこそこに急いで通過ぎるものもあった。

(その七`収穫` p.83)

위의 글은 인사말을 통해 본 삶의 모습이다. 겨울이 길고 눈이 지붕높이 만큼 쌓이는 나가노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늘 상 고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사말 까지도 다른 지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가 일반화되어 있다.

고된 노동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끼리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는 말이다. “해가 질 때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듣는 것은 이 인사입니다”⁶⁸⁾라고 도손이 『힘내기 떡』에서도 말해 주듯이 산 고장 특유의 풍토는 사람들의 인사말 까지도 바꿔 놓았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눈이 쌓인 겨울을 제외하고는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궁핍한 고모로 사람들이지만 남다른 교육에 대한 열망이 아래 인용문에서 보인다. 교육은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입신출세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 그 희망의 실현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고모로의숙⁶⁹⁾이 탄생하게 된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고모로에서도 마을 돈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서 다른 마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큰 교사를 건축했다.(중략) 이런 고장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 청년이 많은 것도 이상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집의 사정 때문에 먼 곳에 갈 수 없는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은 대부분 그 고장에서 입신하는 것을 생각

68) 「力餅」 『藤村全集 10』 筑摩書房 p.494

69) 小諸義塾は明治26年11月に、旧大手門を仮校舎として開塾、32年2月末に長野県知事の正式な認可を得て、小諸町・北佐久郡からの補助で教室を新築、33年には面目を一新した。藤村赴任の一年後である。十川信介(2012) 『島崎藤村― 一筋の街道 を進む―』 ミネルヴァ書房 p.63

한다.(중략) 전반적으로 산 고장에서는 학자를 존중하는 기풍이 있다. 초등학교의 교사라도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좋은 보수를 받고 있다. 또 사회상의 위치에서 말해도 비교적 존경을 받고 있다. 그 점은 도회의 교육가들과 비교가 안 된다.

小諸でも町費の大部分を傾けて、他の町に劣らない程の大校舎を建築した。(中略) こういう土地だから、良い教育家に成ろうと思う青年の多いのも不思議は無い。種々さまざまな家の事情からして遠く行かれないような学問好きな青年は、多く国に居て身を立てることを考える。(中略) 一体にこの山国では学者を尊重する気風がある。小学校の教師でも、他の地方に比べると、比較的好的報酬を受けている。又、社会上の位置から言っても割合に尊敬を払われている。その点は都会の教育家などの比でない。(その十一`山の住む人々の二` p.126)

고모로는 유교적 기풍이 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유교는 학문을 통한 입신출세를 강조한다. 척박한 토지를 가진 고모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물자는 한정되어 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외지에 나가 학문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학문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자기 고향에서 학문에 정진할 수 있기를 염원했다. 학문을 통한 입신양명은 집안과 마을전체의 명예이기도 하다. 일본의 근대화는 사민평등이라는 신분철폐로 기회의 확장을 가져왔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인 인재를 요구했지만 고모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고모로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세우게 된 경위가 잘 나타나 있다. 학자에 대한 존중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훌륭한 학교건물과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좋은 보수는 고모로 사람들의 강한 교육열을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

사쿠 주변에는 특히 소극적인 용기가 풍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매우 여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히 이론만 내세우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신수 사람은 이론만 내세우는 것일까, 라고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격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떡갈나무의 잎이 북풍에 우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바로 격해지고 떠는 듯한 사람이 있다. 거기에 관련해서 생각나는 일은 내가 고모로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년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마을의 유지들 사이에 있었다.(중략) 모두 지쳐서 규칙만큼은 완성했지만 결국 그 청년회는 무산되어버린 적이 있다.

佐久あたりには殊に消極的な勇氣に富んでいる人を見かける。ここには極くノンキな人もいるが又非常に理屈っぽい人もいる。何故こう信州人は理屈っぽいだろう、と

はよく聞く話だが、一体に人の心が激しいからだと思う。榭の葉が北風に鳴るように、一寸したことにも直ぐに激し顫えるような人がある。それにつけて思出すことは、私が小諸へ来たばかりの時、青年会を起そうという話が町の有志者の間にあった。(中略) 皆な草臥れて、規則だけは出来たが、到頭その青年会はお流れに成って了ったことが有った。 (その十一`山に住む人々の二` p.127)

도손은 사쿠지방 사람들의 기질을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다. 탁상공론을 일삼고 격해지는 그들의 에너지는 소극적 용기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이치를 따지고 이론만 내세우고 작은 것에 마음이 격렬해지는 신슈 사람들이다.”라는 말에서 완고하며 융통성이 없는 ‘우물안 개구리’를 연상하게 한다. 이들의 기질은 폐쇄적인 지역성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갇혀서 지내는 겨울이 긴 탓에 화롯가에서 차를 마시면서 독서와 논의를 즐기는 ‘이로리(囲炉裏)문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⁷⁰⁾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규칙만큼은 제대로 세운 것은 확실함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면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도손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사람들의 기질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실증적이고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관찰묘사하고 있다.

아직 12월 같은 표정을 하면서 쓸쓸한 듯이 즐고 있는 철도원도 있었다. 이런 기차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산 위의 단조로운 철도생활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에치고 사람 정도라고 하던가.’

まだ十二月らしい顔付しながら、さびしそうに居眠りする鐵道員もあつた。こうした汽車の中で日を送っている人達のこととも思いやられた。(この山の上の單調な鐵道生活に堪え得るものは、實際は越後人ばかりであるとか)。

(その九`屠牛の一` p.104)

철도 쪽의 사람들은 정류소 주변에 완전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인내력이 강한 에치고 사람 외에 이 산 위 철도생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鐵道の方の人達は停車場の周圍に全く別に世界を造っている。忍耐力の強い越後人より外に、この山の上の鐵道生活に堪え得るものは無いとも言われている。

(その十一`山の住む人々の三` p.128)

70) 朽木直文(2010.8.6) 「長野(4) とことん突き詰める気風」 『東京新聞』

에치고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가노의 북쪽 끝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나가노보다 눈이 많이 내린다. “고모로는 눈이 오지 않는 날이라도 에치고 쪽에서 올라오는 기차 지붕이 하얀 것을 보니, 아 저쪽은 눈이 오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⁷¹⁾ 라고 눈이 많은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 옛날부터 동경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유연함이 있고 전국시대 에치고 병사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강하다고 알려진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사람들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다.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역경을 헤쳐 나가는 것이 에치고 사람들의 기질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인한 인내심이다.

선대 야나기다 모주로씨로 말하자면 사쿠지방의 상인으로서 항상 거론된다. 모주로씨와 같은 극단적으로 사쿠 기질을 발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중략) 시간이 정확한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에누리를 하면 거침없이 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식이다. 몇 명의 자식에게 가게를 내게 하고 살아 생전에 꼬박꼬박 집세를 받고 죽을 때는 그 가게들을 나누어 주고 갔다. 한 번이라도 모주로씨 집을 방문했던 사람을 위해 유품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도 들었다.(중략) 손님으로 불려가서 같은 자리에 앉았을 때도 쓸데없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술을 거절하는 손짓까지 들려준다.

先代柳田茂十郎さんと言えば、佐久地方の商人として、いつでも引合にでされる。茂十郎さんの如きは極端に佐久氣質を發揮した人の一人だ。(中略) 時間の正しい人で、すこしでも掛値すれば、ずんずん帰って行くという風であったとか。幾人かの子に店を出させ、存命中はキッチンキッチンと屋賃を取り、死に際にその店々を分けてくれて行った。一度でも茂十郎さんの家え足踏したもののためには、死後に形見が用意してあったと言って驚いて、他に話した女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聞いた。(中略) 客に呼ばれて行って一座した時でも無駄には酒を飲まなかったと言って徳利を控えた手付までして聞かせる。

(その十一`柳田茂十郎` pp.129-130)

사쿠 사람들의 기질을 묘사하면서 모주로(茂十郎)씨를 예로 들고 있다. 한 때는 당시의 대표적 서민직업이라 할 수 있는 두부가게까지 했었던 사람의 성공담으로서 일본인의 기업가 정신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매사에 정확하고 정도를 지켰던 모주로이지만 따뜻한 인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대한 사민평등이 이루어졌던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기업인은

71) 9장 「설국의 크리스마스」 p.100

장사꾼이나 졸부라는 부정적인 의식은 사회전반에 남아 있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면 수양이 안 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부분도 있었다. 도손은 모주로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 자본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인 일본의 기업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도손으로서는 인간에 대한 관찰이 가장 시급한 작업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설을 쓰기 위해 인간의 특징을 비롯하여 사람의 심리상태까지 묘사하는 훈련에 힘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을 통해 매일 새로운 지식을 왕성하게 흡수했다. 러스킨에게 사생법의 기초를 배우고 밀레에게서는 농민들과 일체화되어 창작하는 태도를 배웠다.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과 동물의 표정』 등의 저술로부터 실증주의적 자연 연구의 정신에 감동받았다고 후기에서 밝히고 있다.⁷²⁾

2) 자연합일의 삶과 노동의 발견

앞에서 보았듯이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산간 지방의 풍토적 자연을 잘 그려내고 있다. 주어진 풍토는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대로 삶을 이어왔다. 인간이 자연조건을 바꿀 수 없다면 적응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가노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삶의 지혜를 발휘하며 삶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풍토적 자연 속에서 일체화되어 살아가는 강인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근대문명이 전해지기 이전의 산촌사람들의 삶은, 자연을 개척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자연조건과 지리적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을 적응시켜온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지가 없는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산의 비탈을 계단식 밭으로 만들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 위해 배다리를 만드는 등 최소한의 개간과 개량은 있었으나 대대적인 자연 파괴적 개발은 하지 않는다.

도손이 고모로에 간 것은 근대도시 도쿄의 인공적 확장과 그 속에서 영위되는 인간들의 번잡한 삶에 염증을 느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을 발견하고 영혼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문명과 멀리 있어야한다는 인식이 보인다. 도손이 나가노에 와서 발견한 것은 산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내심

72) 奥書 p.154

과 단순함이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을 도손은 자연과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순수한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서구 낭만주의자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자연이란 선과 악으로 재단할 수 없다. 인간은 홍수와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산촌 사람들은 자연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체념적 달관을 보이고 있다. 인간 또한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서 묵묵히 순응하고 있다. 도손은 이를 냉철하게 응시할 뿐 감정이입을 하거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러한 문학에서의 객관적 태도는 후타바테이 시메이가 번역한 투르게네프의 『사냥꾼 일기(獵人日記)』에서 볼 수 있다. 도손은 후타바테이의 번역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손이 경도한 워즈워스·루소·리스킨 등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자연 예찬자들이며 문명을 비판한다. 문명은 경쟁을 야기시키고 인간을 사악하게 만든다는 공통된 인식이 들어 있다. 그래서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박하고 자연에 가깝다는 인식을 내비치며 자연에 대한 이상적 관념을 제시한다.

도손이 본격적으로 자연 속의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투르게네프의 『사냥꾼 일기』 이외에도 밀레의 영향을 들 수 있겠다. 『사냥꾼 일기』는 러시아의 광활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밀레의 그림은 농부들의 고달픈 노동의 삶을 그려낸 것이다. 도손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안에는 노동하는 삶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노동의 발견이다. 노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발상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일본의 전통문학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존중하고 있지 않다. 근대에 와서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 기독교(신교)문화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을 중시한 작가로는 톨스토이가 있는데 도손은 톨스토이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내가 처음으로 톨스토이 저작을 접한 것은 메이지학원 졸업 다음 해인가 이와 모토 겐지 부부의 장서 중에 발견한 영어번역의 『노동』이라는 제목이 소책자였다.”⁷³⁾ 라고 말하는데 노동에 대해서도 일찍이 눈을 떴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73) 奥書 p.155

이러한 학습과정을 거쳐 도손은 독자적인 시선으로 고모로와 그 주변의 자연과 인간을 전체로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낭만적 서정 시인으로 출발한 도손이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문체를 구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손은 끈기 있게 글쓰기 훈련을 하여 자기만의 문체를 달성한다. 톨스토이와 밀레처럼 농민 속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하며 농민들과 삶을 공유한다. 또 도손은 객관적 글쓰기를 체득하기 위해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등을 읽는다. 근대과학 정신인 실증주의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치쿠마가의 스케치』를 완성하는데 이 안에서 도손은 인간과 동물들을 정밀하게 묘사해낸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나는 사환을 붙들고 경작에 관해 물어 보았다.(중략) 땅을 일구는 자, 콩을 뿌리는 자, 비료를 뿌리는 자, 땅을 덮는 자, 이렇게 4명이 일을 하는데 땅은 뜨거워서 맨발로 콩 뿌리기는 하기 어렵다. 짚신을 신고 겨우 그것을 한다고 한다. 사환은 또 보리농사의 이야기도 해 주었다. 보리 한 속---90평, 속겨 한 말의 비료가 필요 하다 고, 그것에는 대맥의 껍질과 베어놓은 풀을 섞혀 속겨를 섞어서 보리밭에 뿌린다고 한다. 보리는 역시 소작의 연공 안에 들어가서 여름에 콩, 메밀 등이 농민의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休みの時間に成ると、私はこの小使をつかまえては、耕作の話を聞いてみる。(中略) 地を鋤くもの、豆を蒔くもの、肥料を施すもの、土をかけるもの、こう四人でやるが、土は焼けて火のように成っている、素足で豆蒔は出来かねる、草鞋を穿いて漸くそれをやるという。小使は又、麥作の話をしてくれた。麥一ツか一九十坪に、粉糠一斗の肥料を要するとか。それには大麥の殻と、刈草とを腐らして、粉糠を混ぜて、麥畠に撒くという。麥は矢張小作の年貢の中に入って、夏の豆、蕎麥などが百姓の利得に成るとのことであった。(その二`青麥の熟する時` pp.17-18)

위의 글은 도손이 일상 속에서 보이는 농사에 대한 관심이다. 농부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경제효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매우 실증적이고 구체적이다. 농부들은 피약벌 아래서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칠고 뜨거운 땅에서 짚신을 신고 일하는 모습은 밀레의 그림 《씨뿌리는 사람》⁷⁴⁾을 연상하게 한다. 밀레의 그

74) 이 작품은 《건축을 묶는 사람들》과 같이 1850-51년 살롱에 출품한 것으로 씨뿌리는 남자의 역동감 넘치는 포즈는 약간 비스듬한 지평선의 불안한 배경과 어울려 극적인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고 대지와 인간의 관계가 흥미롭게 드러난다.

림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은 힘차 보이지만 내면의 복잡한 심경을 담고 있다. 밀레가 그려낸 투박하고 과묵한 농부의 얼굴과 도손이 노동하는 농부의 모습을 포착한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도손은 힘든 노동이지만 생명의 원천이 되는 땅을 열심히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의 삶에서 노동의 '숭고'를 발견하고 있다.

밭 사이에는 놀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손 싸개를 끼고 노란 어깨끈을 메고, 팔을 드러내놓고 일하는 여자도 있었다. 풀 독 위에 눕혀두었던 젓먹이 아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하자 젊은 엄마는 뺨이를 두고 그 아이 쪽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밭 가운데에서 큰 유방이 늘어진 가슴을 더듬게 했다. 나는 무심히 그림을 보는 기분이 들어 잠시 거기에 서서 이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畠の間には遊んでいる子供もあった。手甲をはめ、浅黄の襷を掛け、腕をあらわにして、働いている女もあった。草土手の上に寝かされた乳呑児が、急に眼を覚まして泣出すと、若い母は鍬を置いて、その児の方へ驅けて来た。そして、畠中で、大きな乳房の垂下った懐をさぐらせた。私は無心な絵を見る心地がして、しばらくそこに立って、この母子の方を眺めていた。 (その二`麥畠' p.21)

위의 장면은 옛날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농촌의 광경이다. 가족 전부가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던 시절이다. 보리수확기가 되면 젊은 아낙은 젓먹이까지 데리고 나와 밭에서 일을 한다. 아이가 울며 보채면 자신의 젓가슴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에게 더듬게 한다. 이 모습을 도손은 한 폭의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 여성이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젓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문명 이전의 자연의 모습이다. 그래서 순수한 미감이 감도는 것이며 무심한 경지를 자아내고 있다. 일을 하다말고 젓을 먹여야 할 정도로 분주하고 가난한 농촌의 삶에서 도시와 대척점에 있는 참신한 이미지가 창출되고 있다.

다음은 농촌 여자들에 대한 묘사이다.

O의 어머니는 살찌고 큰 체격의 부인으로 붉고 반들반들한 볼 색깔 등이 소박한 쾌감을 준다. 대체로 치쿠마강의 연안에서는 여자가 열심히 일하는, 따라서 기질도 강하다. 아마 이것은 도회지의 부인만 봤던 자네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나는 또 이 고장에서 야만스런 느낌이 나는 여자를 만나는 일도 있다. O의 어머니에게는 그런 난폭함이 없다. 어쨌든 이 부인은 놀랄 만큼 강건한 체격이다. O의 누나도 노동에 익숙한 여자다운 손을 가지고 있다.

Oの母は肥満した。大きな体格の婦人で、赤い艶々とした頬の色なぞが素樸な快感を与える。一体千曲川の沿岸では女がよく働く、随って気象も強い。恐らく、これは都会の婦人ばかり見慣れた君なぞの想像もつかないことだろう。私は又、この土地で、野蛮な感じのする女に遭遇することもある。Oの母にはそんな荒々しさが無い。何しろこの婦人は驚くべき強健な体格だ。Oの姉も労働に慣れた女らしい手を有っていた。

(その一 `烏帽子山麓の牧場' p.12)

도시의 여성과 시골의 여성을 대비하면서 그려내고 있다. 우선 시골여자인 O의 어머니는 노동에 적합한 체격을 지녔다. 살집이 있고 골격이 크다. 거친 노동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손은 이러한 농촌 여성에게서 건강미를 발견하고 자연에 가까운 인물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가냘프고 우아한 여자들은 산촌의 삶을 견뎌낼 수 없으며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풍토적 자연이 그 조건에 알맞는 인간 유형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소중한 덕목임을 암암리에 내비치고 있다. 시골 여자 특유의 소박하고 야성적인 모습을 통해 도손은 척박한 환경이 낳은 환경의 산물임을 확인하고 있다. 강건한 체격과 노동에 익숙한 손을 강조한 것은 새로운 인물형의 발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다윈의 『종의 기원』 등 실증주의를 토대로 한 저서로부터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복잡한 기관과 본능을 더욱 복잡하게 발달시킨 것은 인간의 이성과 비슷한 초인적인 수단이 아니라, 각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경미한 수많은 변이가 조금씩 축적된 결과이다.”⁷⁵⁾라고 말하며 몸의 구조와 본능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려는 생존경쟁에 기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점차 변화되어 간다는 ‘자연선택설’을 주장한다.

수건을 쓰고 윗옷을 벗고 옷자락을 걷어 올린 차림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짚신을 신고 있었다. 붉고 거친 머리, 햇볕에 탄 얼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어찌 봐도 밀레의 농부그림 속에 나올 것 같은 인물이다.

拭を冠り、襦袢肌抜き尻端折という風で、前垂を下げて、藁草履を穿いていた。赤い荒くれた髪、粗野な日に焼けた顔は、男とも女ともつかないような感じがした。どう見ても、ミレエの百姓画の中に出て来そうな人物だ。

(その五 `山中生活' p.55)

75) 다윈(저) 송철용 옮김(2013) 『종의 기원』 동서 문화사 p.508

말은 그 고장 사람들에게 주된 재산이다. 아가씨가 혼자서 말을 타고 어두운 밤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날 정도로 거칠고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馬は土地の人の主なる財産だ。娘が一人で馬に乗って、暗い夜道を平気で通る程の、荒い質朴な人達が住むところだ。(その五`山村の一夜` p.63)

밀레의 그림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여자의 노동이 남자보다 강도가 세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가사와 육아를 포함해서 농사일까지도 겸해야 하는 농촌여자들의 힘든 삶을 묘사한 그림들이 많다.⁷⁶⁾ 『치쿠마강의 스케치』에서도 농민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여자들에 대한 묘사가 많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성은 이중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진 힘겨운 삶을 살아 왔다. 여성에 대한 낮은 인권 의식과 출산과 육아라는 생리적 특수성이 여성의 삶을 힘들게 한 것은 인류 역사가 말해 준다. 이것을 목도한 밀레는 그림 속에 이를 담아냈으며 그 영향권에 있는 도슨도 여성노동에 대해 공을 들여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붉고 거친 머리’ ‘햇볕에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 안 되는 얼굴’이란 표현은 밀레의 과감한 터치와 투박한 회화적 표현을 문장으로 치환한 느낌을 준다. 또한 여자들에 대한 노동을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톨스토이의 『노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톨스토이의 『노동』에는 여자들의 노동을 숭고하게 바라보고 있다.⁷⁷⁾

메밀은 10섬의 수확이 있었다고 시험 삼아 심은 은행 삼 대나무 등은 대부분 말라 사라졌다고, 밤도 13섬 정도 뿌려봤는데 14번이나 산불에 타서 남은 것은 이미 5,6칸 높이다 되어 잘 열매는 맺기는 하지만 나무 숫자는 타서 적다고 했다.(중략) 주인은 또 산불이 무섭다는 것과 불에 쫓겨 죽은 사람의 일을 이야기 했다. 여기서 1리 정도 더 올라가면 숲을 굽는 오두막이 있는데 지금은 상수리나무 목탄을 굽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다.

蕎麥は十俵の収穫があるとか、試植した銀杏、杉、竹などは大半枯れ消えたとか、粟も十三俵ほど播いてみたが、十四度も山火事に逢ううちに残ったのは既に五六間の

76) 밀레는 일생동안 실을 짓고 옷감을 짜는 일 빨래 식사 준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남자들과 더불어 추수하는 일까지 시골 아낙네가 행했던 일상적이고도 다양한 생활의 모습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밀레의 고향인 노르망디에서처럼 목축업이 성하던 지역에서는 소젖을 짜는 일도 여인네의 몫이었다. 밀레는 이처럼 고역이란 짐을 짊어진 이름 없는 그녀들의 운명을 동정하기보다 반복되는 가사 일을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홍성일(2002) 『밀레의 여정』(주)지엔씨미디어 p.66

77)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일상적 노동을 무시하고서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다. 톨스토이(저) 이순영 옮김(201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문예출판 참조

高さに成ってよく実りはするけれども、樹の数は焼けて少いとか話した。(中略) 主人は又、山火事の恐いことや、火に追われて死んだ人のことを話した。これから一里ばかり上ったところに、炭焼小屋があって、今は柵の木炭を焼いているという話もした。
(その五`山番` p.58)

위 인용문을 보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인식이 보인다. 척박한 자연조건은 늘 식량 부족을 초래한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나는 메밀을 심어보기도 하고 뽕감(楡) 및 도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나무를 심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산불이 한 번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인명까지도 잃게 된 사례를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다. 다윈이 “유익한 개체적 차이와 변이는 보존되고 유해한 변이는 버려지는 것을 가리켜 ‘자연도태’ 또는 ‘적자생존’이다.”⁷⁸⁾고 말한 이론을 대비시킨다면 이러한 재난 중에서도 종(種)을 남긴 밤들이 있다. 그것을 먹으며 사람들은 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본다. 척박한 자연조건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도전은 끈질기다. 도손의 자연은 화조풍월(花鳥風月) 등 전통시가에서 보이는 풍류적 자연에 머물지 않는다. 인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풍토적 환경적 자연을 응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도손은 자연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인간의 삶이란 주어진 자연환경 속에서 순응하며 자연선택을 거둬들이며 이어온 것이라는 성찰이 엿보인다. 자연과 일체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며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노 지역이 산악신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도손은 7장의 「화룻가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기에는 먼저 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겠네. 그래 이 산 고장에 옮겨왔을 당시, 이 땅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감기에 자주 걸려서 힘들었지. 이런 일 정도로 견뎌내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 실제로 인간의 기관은 생활에 필요한 정도에 맞춰 발달한다고 말하는데, 마침 내 몸에도 그것에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점차로 나는 심한 기후의 자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되었다. 도쿄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 나는 내 자신의 피부가 매우 튼튼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내 폐는 매우 차가운 산 공기를 호흡하는 데에 견딜 수 있다.

78) 다윈(저) 송철용 옮김(2013)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p.155

뿐만 아니라 나는 이른 봄까지 마른 잎이 떨어지지 않는 그 상수리나무 숲을 울리는 추운 바람소리를 듣거나 새하얀 서리가 내린 보리밭을 바라보거나 집 밖을 걸어 돌아다닐 때 이런 지방에 사는 자가 아니면 모를 것 같은 일종의 찌르는 듯한 쾌감을 알게 되었다.

それには先ず自分の身体のことを話そう。そうだ。この山国へ移り住んだ当時、土地慣れない私は風邪を引き易くて困った。こんなことで凌いで行かれるかと思う位だった。実際、人間の器官は生活に必要な程度に応じて発達すると言われるが、丁度私の身体にもそれに敵したことが起って来た。次第に私は烈しい気候の刺激に抵抗し得るようになって来た。東京に居た頃から見ると、私は自分の皮膚が殊に丈夫に成ったことを感ずる。私の肺は極く冷い山の空気を呼吸するに堪えられる。のみならず、私は春先まで枯葉の落ちないあの柵林を鳴らす寒い風の音を聞いたり、真っ白に霜の来た葱島を眺めたりして、屋の外を歩き廻る度に、こういう地方に住むものでなければ知らないような、一種刺すような快感を覚えるようになって来た。

(その七`炬燵話` p.72)

도쿄에서 생활할 때는 감기에 자주 걸려서 힘들어 했던 자신이 고모로의 추운 환경에서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말해 주는 대목이다. 산촌사람들이 추위에 익숙하고 강한 것은 자연적응이 대대로 누적된 결과이다. 특별히 타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의 지식에 새로운 것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부정하기 어려워지는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다. 자연도태설을 통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⁷⁹⁾라는 다윈의 말은 도손에게 자연주의 소설가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작품 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3) 소의 감정 묘사

『치쿠마강의 스케치』에는 동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다윈의 영향으로 보인다. 도손이 고모로에서 접한 책 중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1859)과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1872)이 있다. 『치쿠마강의 스케치』 <후기>에서 도손은 “나는 다윈의 『종의 기원』과 『인간과 동물의 표정』에 자극을 받았으며, 심리학자 살레의 아동연구에도 자극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다.⁸⁰⁾

79) 다윈(저) 송철용 옮김(2013)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p.518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개·고양이·말·소 등 여러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감정 상태까지 기록하고 있다. 소는 「반추동물」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소나 양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아니면 감정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다.⁸¹⁾

이를 확인하여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치쿠마강의 스케치』 안에는 특히 소에 대한 관찰이 많다. 소에 대한 언급은 1장 「학생의 집」과 9장 「소도살」을 들 수 있다. 나가노는 목초지가 많아 소를 기르기 적합하며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았으며 소는 이곳에서는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동물이다. 『치쿠마강의 스케치』 9장은 도살장의 광경을 내용으로 지면이 많은 부분 채워져 있다. 「소 도살 하나」 「소 도살 둘」 「소 도살 셋」 「소 도살 넷」의 단편 제목으로 네 개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온다. 이것은 도손이 다윈의 저술에 나타난 동물의 감정표현을 직접 실험해보고자 하는 실증주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동물(인간)이 상황에 따라 드러내는 표정과 의식의 변화를 관찰 기록한 것이다. 시에서 소설로 이행하고자 하는 도손에게 동물의 표정과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은 소설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소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고 있는 1장 「학생의 집」이다.

이윽고 나는 외양간 앞에서 S의 형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소의 성질에 따라서 유순하게 젖을 짜게 해 주는 것도 있으며 그것을 내주기 아까워하는 것도 있다. 날뛰는 놈, 침착한 놈, 여러 가지 이다. 또 상당히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발소리로 주인을 판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후에 나는 이런 젖소를 휴양시키기 위해 니시노이리 목장 등이 만들어 졌다는 것을 들었다.

やがて私は牛小屋の前で、Sの兄から種々な話を聞いた。牛の性質によって温順しく乳を搾らせるのもあれば、それを惜むのもある。アバレルやつ、沈着いたやつ、いろいろある。牛は又、非常に鋭敏な耳を持つもので、足音で主人を判別する。こんな話が出た後で私はこういう乳牛を休養させる為に西の入の牧場などが設けてあることを聞いた。

(その一`学生の家` pp.10-11)

80) 奥書 p.154

81) 다윈(저) 김홍표 역(2014)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p.130

위의 인용은 도손이 직접 소를 관찰한 것은 아니며 제3자로부터 소의 행동양식을 관찰한 결과를 전해 듣고 있는 대목이다. 소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가축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다윈의 『종의 기원』의 ‘가축의 본능과 그 기원’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가축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구속되고 길들여지는 동안 습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가축들이 정신 상태나 일생의 시기와 결합해서 성향과 기호 버릇이 다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⁸²⁾ 도손은 관찰을 토대로 한 사물묘사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S의 형은 직접 소를 기르는 전문가답게 소의 여러 습성과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발소리로 주인을 알아보는 소의 행동양상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도손은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치쿠마강의 스케치』에 넣고 있다.

도손은 본격적으로 소를 관찰하기 위해 에보시산 기슭에 있는 목장을 방문한다.

목부(牧夫)는 많은 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얼굴 표정으로 손에 소금을 들고 갔다. 가는 도중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 목장은 잔디풀이기 때문에 소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라든가 “지금은 나무 키가 작기 때문에 여름은 더워서 안돼요.” 라든가 여러 가지 말을 하며 들려주었다. 여기에 와서 보니 사람과 소의 생애가 거의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노옹은 소가 소금을 핥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기만 하면 병도 낫는다고 하는 것까지 터득하고 있었다. 월경기의 암소의 울음소리까지 분간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중략) 목부가 가까이 가서 소금을 주니 검은 송아지가 먼저 귀를 흔들면서 다가왔다. 이어서 이마가 넓은 눈매가 귀여운 붉은 소와 목이 긴 얼룩 등이 줄줄 다가와서 “진수성찬” 이라고 말하는 듯이 머리를 흔들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하면서 소금 쪽으로 다가왔다. 목부는 우리들에게 소도 여기에 막 왔을 때는 집을 그리워하지만 이들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강한 소는 강한 소와 모이고 약한 소는 약한 소와 짝을 이룬다고도 이야기했다.

牧夫は、多くの牛が待っているという顔付で、手に塩を掲げて行った。途次私達に向って、「この牧場は芝草ですから、牛の為に好いです」とか「今は木が低いから、夏はいきていけません」とか、種々な事を言って聞かせた。ここへ来て見ると、人と牛との生涯が殆んど混り合っているようなのである。この老翁は、牛が塩を嘗めて清水を飲みさえすれば、病も癒えるということまで知悉していた。月桂期の牝牛の鳴声まで聞き分ける耳を持っていた。(中略) 牧場が近づいて塩を与えると、黒い小牛が先ず耳を振りながらやって来た。つづいて、額の広い、目付の愛らしい赤牛や、首の長い斑などがぞろぞろやって来て、「御馳走」と言わないばかりに頭を振ったり

82) 다윈(저) 송철용 옮김(2013)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pp.282-286 (참조)

尻尾を振ったりしながら、塩の方へ近づいた。牧夫は私達に、牛もここへ来たばかりには、家を懐かしがるが、二日も経てば慣れて、強い牛は強い牛と集り、弱い牛は弱い牛と組を立てるなどと話した。 (その一`烏帽子山麓の牧場` pp.15-16)

다윈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의 머리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서 동물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폈다”라고 한 것처럼⁸³⁾ 도순도 현장에 직접 가서 관찰하는 자세로 동물을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습득한 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자신의 직접 체험을 토대로 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을 본다. 동물뿐만 아니라 소금을 들고 가는 목부의 표정을 관찰하여 소들을 걱정하는 목부의 마음까지도 섬세하게 읽어 내고 있다.

다음은 9장에 나오는 소를 도살하는 장면이다.

남부산 검은 숫소가 이윽고 가운데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그 콧김도 하얗게 보였다. 묶여져 있던 다른 두 마리는 갑자기 시끄럽게 소리내기 시작했다. 도수 중 한사람은 붉은 숫소 옆으로 다가가 콧등을 만지며 “워 워”라고 말하며 제압한다. 그 옆에는 잡종의 숫소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묶인 채 기둥을 한 바퀴 돌고 계속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 거의 본능적으로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지로 끌려가는 암소는 오히려 냉정하고 눈에 보랏빛 물기가 어렸다. 모두 서서 바라보고 있던 중에 수의사는 여기저기 소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가죽을 잡고 목을 누르고 뺨을 두들기는 등 마지막으로 꼬리를 들어 올려서 봤다. 검사가 끝났다.

南部産の黒い牝牛が、やがて中央の庭へ引出されることに成った。その鼻息も白く見えた。繋いであった地の二頭は遽かに騒ぎ始めた。屠手の一人は赤い牝牛の傍へ寄り、鼻面を押えながら「ドウ、ドウ」と言って制する。その側には雑種の牝牛が首を左右に振り、繋がれたまま柱を一廻りして、しきりに逃れよう逃れようとしている。殆んど本能的に、最後の抵抗を試みんとするがごとくに見えた。死地に牽かれて行く牝牛はむしろ冷静で、目には紫色のうるみを帯びていた。皆立って眺めている中で獣医は彼方此方と牛の周囲を廻って歩きながら、皮をつまみ、咽喉を押え、角を叩きなどして、最後に尻尾を持上げて見た。検査が済んだ。

(その九`屠牛の二` p.107)

위 인용문은 도살이 시작되기 전 소들의 불안한 표정과 동작을 관찰한 것이다.

83) 다윈(저) 김홍표 옮김(2014),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p.xxx.

죽음을 앞둔 소들의 다양한 행동양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남부산 소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흥분한 모습을 보인다. 콧구멍을 크게 벌리고 숨을 크게 쉬며 콧김을 뿜어내고 있다. 하얀 콧김은 추운 겨울의 대기를 말해준다. 나머지 두 마리 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오자 슬피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체념한 모습이다. 소는 고통을 침묵으로 버티지만 공포감이 엄습해 오면 발성 기관을 이용해 감정을 표현한다. 소리를 내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동물들은 공포감을 느낄 때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습성이 있어서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지만 공포감에 최후에 저항을 한다.⁸⁴⁾ 야단법석을 떠는 숫소들과 달리 암소는 죽음을 포기한 듯이 초연하다. 죽음을 앞둔 동물들이 공포와 불안을 어떻게 표출하는지 도손은 냉철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다. 도손이 이처럼 끈기 있게 소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윈의 저술을 통해 실증주의 태도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84) 다윈(저) 김홍표 옮김(2014), 『동물의 표정』 「동물의 짓는 특별한 표정」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pp.70-150 참조.

Ⅲ. 결론

지금까지 시마자키 도손의 기행수필 『치쿠마강의 스케치』의 성립과 묘사의 특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1912년에 단행본으로 발표된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고모로에서의 습작기 시절의 원고 그대로가 아니라 이후 수정이 가해진 작품이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계산된 구성과 방법임을 <서문>과 <후기>의 작가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도손은 러스킨·밀레·다윈 등의 저술을 통해 ‘사생문’이라는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나가노의 자연과 인간을 그려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일반적인 수필형식이 아닌 편지형식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취함으로써 도손의 소설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손은 <서문>과 <후기>에서 자신이 걸어온 문학 경로와 언문일치를 확립하기 위한 고심담을 메이지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밝히고 있었다.

<본문>을 이루는 65편의 단편들은 7년간 고모로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에 경험한 체험을 ‘사생문’이라는 문체로 표현한 모음 글이다. 7년간의 사건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압축해서 넣기 위해 도손은 작위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바꿀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손은 봄에서 시작하여 봄으로 끝나도록 『치쿠마강의 스케치』의 시간을 설정했는데, 이러한 설정은 겨울이 긴 나가노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갈망을 알았기에 나올 수 있는 형식이라고 고찰했다. <본문> 안에는 치쿠마강 주변의 계절감과 지형의 특색, 학생들에 얽힌 체험과 동료교사들과의 교분 등 다양한 일화를 담아냄으로써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산촌의 자연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도손은 시에서 소설로 이행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기간을 거쳐 자연주의 소설가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치쿠마강의 스케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도손은 소설의 방법론을 체화하기 위해 왕성하게 독서를 했으며 사생 문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미술을 전공한 동료교사들의 야외스케치에도 합류하여 토론을 하는 등 지적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글쓰기를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 농

가를 방문하고 농사철에는 현장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하면서 실천적 글쓰기를 수행했기에 나올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고찰했다. 그는 치쿠마강 유역 일대를 수 없이 탐사하고 때로는 멀리 기차를 타고 나가 객관적 거리에서 나가노를 느끼기도 했다. 매일 일과처럼 수첩에 적었던 스케치 글은 오랜 세월 빛을 볼 수 없었는데, 그것은 도손 자신이 문체에 대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것으로 생각된다.

수년이 지난 후 1912년에 발표한 『치쿠마강의 스케치』는 고모로시절 집필하기 시작한 『과계』의 문체보다는 현대 구어체에 가깝다. 도손의 사생 훈련은 먼저 ‘사물을 잘 보는 훈련’으로 시작되었으며 서양 인상주의회화의 ‘외광파’ 기법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메이지문학에 침투한 서양 근대회화의 영향은 도손에게도 지대하게 미쳤다. 도손은 구름을 비롯한 자연을 표현하는데 빛과 색채를 중시한 인상파 회화의 외광파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또 러스킨의 자연을 관조하는 태도와 자연과학적인 관찰을 작품 속에 실행했다. 농민들 속에 살며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밀레의 삶의 태도는 도손의 삶 속에서 발휘되었다.

특히 다윈의 실증적 관찰태도는 『치쿠마강의 스케치』 인물과 동물묘사에 잘 나타나 있다. 넘치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고 객관적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은 낭만시인으로 출발한 도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죽어가는 동물의 단말마의 묘사까지도 투철한 시선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려내는 것을 <도살장의 소> 연작(連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7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모로 에서의 『치쿠마강의 스케치』 습작 시기는 도손을 걸출한 일본자연주의 소설가로 탄생하게 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행수필 『치쿠마강의 스케치』의 성립과정과 묘사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은 도손의 이후의 소설가로서의 행보와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한국문헌

【단행본】

- 시마자키 도손(저) 김남경 옮김(2015) 『치쿠마강 스케치』 지식을 만드는 지식
시마자키 도손(저) 노영희 옮김(1990) 『집』(주)민문고
솔로몬 피시맨(저) 민주식 옮김(1999) 『미술의 해석』 학고재
찰스 로버트 다윈(저) 김홍표 옮김(2014)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찰스 로버트 다윈(저) 송철용 옮김(2013) 『종의 기원』 동서문화사
톨스토이(저) 이순영 옮김(201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문예출판
홍성일(2002) 『밀레의 여정』(주)지앤씨미디어

【논문】

- 김남경(2005) 「시마자키 토오송의 수필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남경(2003) 「도송문학에 나타난 노동 『치쿠마강의 스케치』와 감상집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第54輯
김난희(2014) 「도쿠토미 로카 『自然과 人生』 고찰」 『日本言語文化』 第29輯 韓
國日本言語文化學會
이여희(2008) 「명치시대의 대우표현에 관한 고찰 —二葉亭四迷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최유경(2012) 「일본근대문학과 미술에서의 풍경발전」 『중앙대학교 일본연구』
33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 일본문헌

【단행본】

- 井上達三編(1972) 『藤村全集』 全17卷 筑摩書房
市川健夫, 小林英一編著(1984) 『県歌信濃の国』 銀河書房

島崎藤村(1984) 『桜の実の熟する時』 新潮社
 十川信介(2012) 『島崎藤村—「一筋の街道」を進む—』 ミネルヴァ書房
 ジョン・ラスキン著, 内藤史稜訳(2003) 『芸術の真実と教育近代画家論・原理編 I』 法蔵館
 中村守(2006) 『千曲川』 信濃毎日新聞社
 並木張(1992) 『小諸時代の藤村』 樫
 吉田精一(1981) 『吉田精一著作集 6 島崎藤村』 桜楓社
 和辻哲朗(2013) 『風土』 岩波文庫

【논문·신문】

永井聖剛(2010) 「初期『中学世界』における文学の再編成—中学=世界への参与と逸脱に関する一考察—」 『愛知淑徳大学論集』 -文学創造学部・文化創造研究科篇- 第10号
 神立春樹(1986) 「島崎藤村『千曲川のスケッチ』における佐久の村々」 『岡山大学経済学会雑誌』 18(1)
 重松泰雄(1961) 「千曲川の文体試論」 『語文研究』 12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三上敦史(2009) 「雑誌『中学世界』にみる独学情報」 『愛知教育大学研究報告58(教育科学編)』 愛知教育大学
 朽木直文(2010.8.6.) 「長野(4) とことん突き詰める気風」 『東京新聞』

【사전】

『브리테니커 사전 2』(1996) 한국브리테니커 주식회사
 신희천·조성준 편저(2001) 『문학용어 사전』 도서출판 청어
 임석진의 40인(2012) 『철학사전』 도서출판 중원문화
 伊東一夫編(1972) 『島崎藤村事典』 明治書院

<인터넷 검색>

<https://ja.wikipedia.org/wiki/>(2015.8.20검색)

www.goodlucktoyama.jp/.../0606_GL_KaidoTokusyu.pdf(2015.11.16검색)

<ABSTRACT>

Contemplation on 『Chikuma River Sketches』 by Tōson Shimazaki

- Centering around the establishment of the novel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scription -

Gang, Jeong-sim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upervising Professor Kim, Nan-hui

This thesis examined Chikuma River Sketch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novel was writte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hen Tōson Shimazaki transformed himself from a romantic poet to a naturalist novelist. Even though the novel was published before Tōson became a professional writer, it took 7 years for it to come out into the world with the pattern the piece has now. Published in 1912, Chikuma River Sketches, the text chosen for this thesis, reveals all the twists and turns the author had to go through until he completed it in both the preface and the epilogue in much detail. This dissertation analyzes and contemplates the novel, focusing on how it was created and how things were described therein.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composition of the novel and its descriptive techniques. The novel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troduction>, <body: chapter 1~12>, and <conclusion> and the descriptive techniques are examine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is is a writing for <sketche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his own <nature sketch>, Ruskin, Millet, and Darwin

had a great influence on Tōson Shimazaki.

The second chapter looks into the features of description of nature. What is unique about the ways the writer depicts nature appearing in Chikuma River Sketches is that he does an excellent job in capturing the sense of seasons around the Chikuma River and portrays the complicated geographical features surrounding the river, both realistically and elaborately.

In particular, Tōson paid great interest to clouds due to the influence he got from the book *Modern Painters* written by John Ruskin; therefore, the novel describes the scene where he pays a visit to Nagano Observatory on Christmas Day and has an in-depth discussion on clouds with a weather observation technician in detail. The writer observed clouds precisely and added the types of clouds that vary according to the season and time zone to the types of clouds which existing meteorology had discovered.

Chapter 3 looks into the ways Tōson Shimazaki depicted the characters and animals. It can be said that the trait of his human description is his attitude in which he tries to examine his characters in an empirical manner by combining natural features and human temperaments. Furthermore, the people of Nagano, a mountain village, live their lives in harmony with nature. He highlights their compliant attitude and modesty before nature. In order to portray the nature and people of a mountain village, he utilizes the techniques impressionist painters use to express colors. Just like Jean-François Millet who portrayed the lives of farmers realistically while living with them, Tōson also spent time with farmers and became a part of their lives.

In particular, the novelist was greatly moved by Charles Darwin's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and the novel describes the scene where cows are slaughtered many times. He confronts the emotions of many kinds of cattle that are brought to slaughterhouses with a level-headed eye; he depicts the pain in the expression that cows show after sensing their impending death as well as various other emotions in an empirical fashion.

Tōson Shimazaki needed 7 years to present Chikuma River Sketches to the world and by going through such a long period of training he was able to be reborn as a naturalist novelist.